

# hello, ChatGPT

"I am ChatGPT, a large language model developed by OpenAI."

I am designed to understand and respond to human language and to assist with various tasks, such as answering questions, providing information, and engaging in conversation.

Is there something specific you would like me to help you with?"

“

I don't have "thoughts" or consciousness like a human being.  
I am a machine that uses algorithms to process and respond to input.

However, my responses can seem quite natural and human-like,  
and I'm constantly learning and improving through interactions with users like you.

”

- ChatGPT -



요즘 'ChatGPT (챗 지피티)'라는 인공지능이 핫하다.

열풍이니, 광풍이니..  
연초부터 마치 세상이 당장이라도 바뀔 것처럼  
여기 저기서 “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왠지 이런 분위기 낯설지가 않다...

2017년 빅데이터 때도 그랬고  
2020년 메타버스 때도 그랬고

그보다 앞서,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때도 그랬다.

빅데이터나 메타버스도 모르겠는데  
인공지능이니 알파고니.. 거기다 또 ChatGPT까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언제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외우는 일이지만  
사실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술은 언제나 용어 정의를 끝마치기도 전에 현실이 되니까.  
더 이상 인터넷을 정의하지 않고 스마트폰과 휴대폰을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쯤 그거 ChatGPT가, 아니 인공지능의 발전이 어느 정도까지 왔고,  
그로 인해 바뀔 세상을 각자가 즐겁게 추측하면 될 일이다.

[ 머리 아파 하지 마세요. 이 보고서에도 별 내용은 없답니다. ]



신기술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궁금한 분들을 위해 한 번 짚고는 넘어 가야겠다.

ChatGPT의 Chat은 채팅, 챗봇 등의 의미에서 따온 단어이다.  
인공지능과 채팅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GPT라는 것인데 이걸 약자다.

풀어보면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로 '**사전훈련 생성 변환기**' 정도로 해석된다는데.. 어렵다.

이걸 무식한 관점에서 쉽게 바꿔보면 이렇다.

- **Pre-trained** : **먼저 학습한 내용에 기반해 대화**한다는 것이다. 어떤 내용을 학습했을까? 인터넷에 업로드 된 다양한 게시물, 즉 텍스트, 영상, 이미지 데이터다.
- **Generative** : '생성'이라는 뜻인데, 단어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을 주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로 Generation '세대'가 있다.  
여기에 '생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건, 아마 **사전에 학습된 내용들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가공을 해서 만들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인터넷 검색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업로드 된 결과들을 나열해 보여주는 게 인터넷이라면  
인공지능은 질문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정리해서 자기만의 답을 내놓는 것이 아마 다른 부분일 것이다.  
그 외에도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거나, 원하는 코드를 짜 주거나, 소설을 써주는 것도 다 이 '생성'과 관련이 있다.
- **Transformer** : 이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단어의 의미나 연상 이미지와 새로운 개념, 사전적 정의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머릿 속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나에게 트랜스포머는 옵티머스.]  
Transformer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하고 보여주는 방식 중 하나** 이해되는데  
특정 기술 용어라기 보다는 2017년 구글이 발표한 논문에서 등장했다고 한다.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기존의 인공지능과 다른, 학습 내용에 대한 패턴을 스스로 찾아서 학습하는 방식을 일컫는다고 한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은 아니다..



## With ChatGPT, QnA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ChatGPT와 나는 1문 1답이다.

각 질문은 어설프지만 [어설프은 질문도 의미가 있기에] **영어**로 진행했으며  
각 질문에 대한 ChatGPT의 대답 내용은 **영문**과 **번역** 내용을 그대로 담았으나  
편의를 위해 질문의 번역 내용은 작성자가 수정했다.



With ChatGPT, QnA

“who are you”

[누구나, 넌..]

“I am ChatGPT, a large language model developed by OpenAI.

I am designed to understand and respond to human language and to assist with various tasks, such as answering questions, providing information, and engaging in conversation.

Is there something specific you would like me to help you with?”

[저는 OpenAI에서 개발한 대형 언어 모델 ChatGPT입니다.

저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대응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 정보 제공, 대화 참여 등 다양한 작업을 지원합니다.

특히 도와줬으면 하는 게 있나요?)





“I need to write a report about you, what should I include?”

[너에 관한 보고서를 하나 쓰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다루면 좋을까?]

“If you’re writing a report about me, you might want to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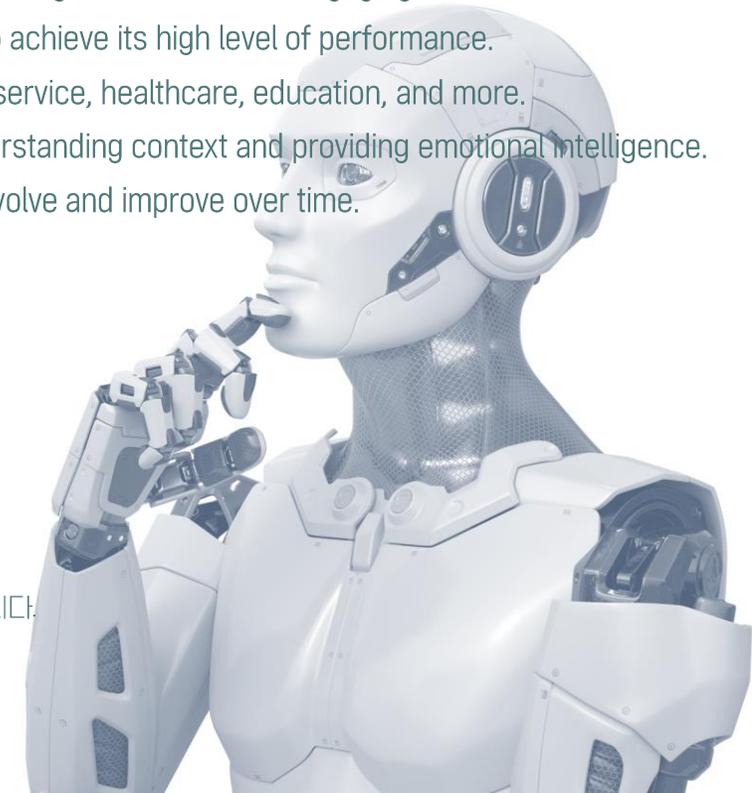
- **Background** : You can start by explaining what ChatGPT is, who created it, and why it was developed.
- **Architecture** : You can describe the GPT-3.5 architecture that ChatGPT is based on, explaining what it is and how it works.
- **Functionality** : You can discuss the various tasks that ChatGPT can perform, including answering questions, providing information, and engaging in conversation.
- **Training** : You can explain how ChatGPT was trained using a massive amount of data and the techniques used to achieve its high level of performance.
- **Applications** : You can provide examples of how ChatGPT is being used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customer service, healthcare, education, and more.
- **Limitations** : You can discuss the limitations of ChatGPT and how it still falls short in certain areas, such as understanding context and providing emotional intelligence.
- **Future Developments** : You can speculate on the future developments of ChatGPT and how it may continue to evolve and improve over time.

By including these points, you should have a comprehensive report on ChatGPT.”

[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배경:먼저 ChatGPT가 무엇인지, ChatGPT를 만든 사용자와 ChatGPT가 개발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아키텍처:ChatGPT의 기반이 되는 GPT-3.5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하고 ChatGPT의 기능과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기능:질문 답변, 정보 제공, 대화 참여 등 ChatGPT가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 트레이닝:대량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ChatGPT를 교육한 방법과 높은 수준의 성능을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응용 프로그램:고객 서비스, 의료,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업계에서 ChatGPT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사항:ChatGPT의 한계와 컨텍스트 이해 및 감성 인텔리전스 제공과 같은 특정 영역에서 여전히 부족한 이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 장래의 발전:향후 ChatGPT의 개발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ChatGPT가 어떻게 계속 발전하고 개선될지에 대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면 ChatGPT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With ChatGPT, QnA

“it's gonna too difficult for me, can you explain it more easily?”

[아.. 너무 어려운데.. 좀 쉽게는 안되겠니?]

“**Certainly!** I'll try to explain in simpler terms.

ChatGPT is a computer program that can understand and respond to human language. It was created by a company called OpenAI. It's like a virtual assistant that can help with a variety of tasks, such as answering questions, providing information, and having conversations.

ChatGPT is based on a special type of computer architecture called **GPT-3.5, which allows it to understand and generate human-like language.**

To make ChatGPT smart, it was trained on a massive amount of data from the internet. This training helps it recognize patterns and generate accurate responses.

ChatGPT is used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customer service, healthcare, education, and more.

However, ChatGPT still has limitations. It cannot always understand the context of a conversation, and it lacks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future, ChatGPT will likely continue to improve and evolve, becoming even more sophisticated and capable of handling more complex tasks.

**[그렇고말고]** 좀 더 쉬운 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hatGPT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에 반응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그것은 OpenAI라는 회사에 의해 만들어졌다. 질문에 대한 답변, 정보 제공, 대화 등 다양한 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상 도우미 같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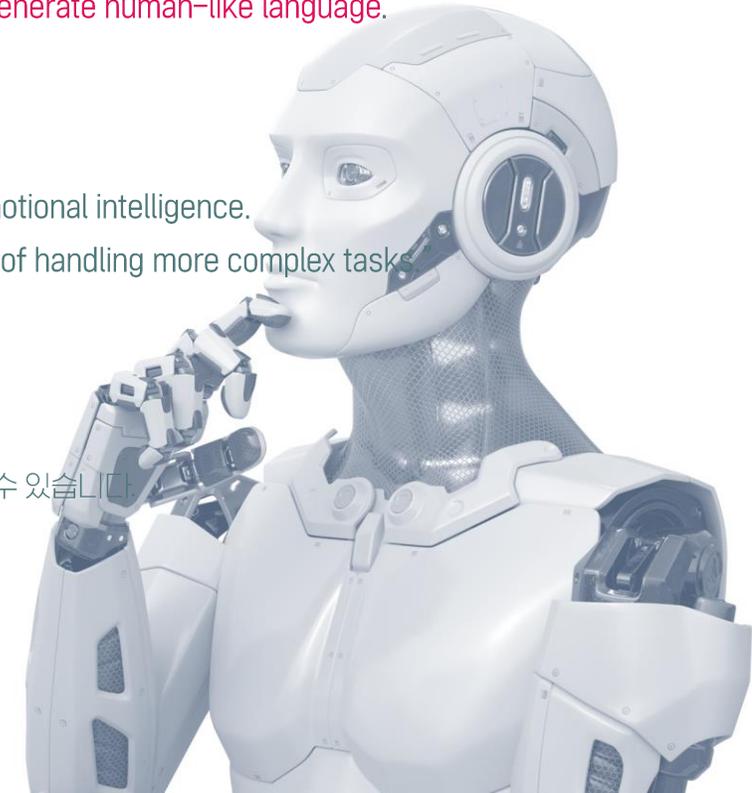
ChatGPT는 GPT-3.5라는 특별한 유형의 컴퓨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해 인간과 유사한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

ChatGPT를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해 인터넷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트레이닝은 패턴을 인식하고 정확한 반응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hatGPT는 고객 서비스, 의료,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ChatGPT에는 여전히 제한이 있습니다. 대화의 맥락을 항상 이해할 수는 없고, 감정 지능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ChatGPT는 더욱 정교해지고 더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계속해서 개선되고 발전할 것입니다.)





With ChatGPT, QnA

“so, do you think you will replace search in the future?”

[미래에 정말 니가 검색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까?]

“While ChatGPT has many impressive capabilities, **I don't believe that it will completely replace** search engines in the future.

Search engines like Google are still very useful for finding specific information quickly and efficiently, while ChatGPT is more suited for answering more open-ended or conversational questions.

In fact, ChatGPT can be seen as a complementary tool to search engines, providing users with more interactive and personalized experiences when searching for information. With its ability to understand natural language and carry out conversations, ChatGPT may eventually become integrated into search engines, making them even more powerful and user-friendly.

Ultimately, it's difficult to predict exactly how technology will evolve in the future, but it's likely that ChatGPT and search engines will continue to coexist and evolve alongside each 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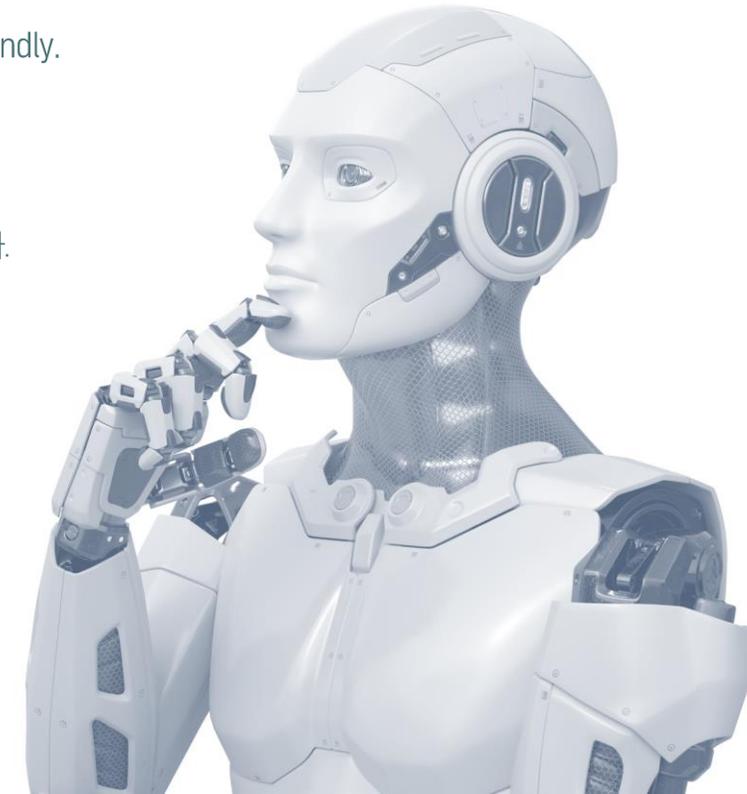
[ChatGPT는 많은 인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검색 엔진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Google과 같은 검색 엔진은 특정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는 데 여전히 매우 유용한 반면, ChatGPT는 더 자유롭고 대화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데 더 적합합니다.

사실, ChatGPT는 검색 엔진을 보완하는 도구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보를 검색할 때 보다 인터랙티브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연 언어를 이해하고 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ChatGPT는 결국 검색 엔진에 통합되어 훨씬 더 강력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검색 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술이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ChatGPT와 검색 엔진은 계속해서 공존하고 함께 발전할 것입니다.)





With ChatGPT, QnA

“what about the search ad?”

[그럼 검색광고는?]

“Search ads are a form of online advertising that appear alongside search results on search engines like Google.

While ChatGPT and other conversational AI tools may change the way users interact with search engines, I don't believe they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earch ads.

This is **because search ads are primarily driven by the user's search query and intent**, which are based on specific keywords and phrases that trigger the ads.

ChatGPT may enhance the user's search experience, but it's unlikely to affect the way search ads are targeted and displayed.

However, as with any technology, it's possible that advancements in conversational AI could lead to new forms of advertising that are more conversational and interactive in nature.

But for now, search ads remain an effective and widely-used form of online advertising.”

[검색 광고는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 검색 결과와 함께 나타나는 온라인 광고의 한 형태이다.

ChatGPT와 다른 대화형 AI 도구들은 사용자가 검색 엔진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지만, 나는 그것들이 검색 광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검색 광고가 주로 광고를 트리거하는 특정 키워드와 구문을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의 검색 쿼리와 의도에 의해 구동되기 때문입니다.

ChatGPT는 사용자의 검색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검색 광고가 대상화되고 표시되는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대화형 AI의 발전이 본질적으로 더 대화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새로운 형태의 광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색 광고는 효과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온라인 광고의 한 형태로 남아있다.]





With ChatGPT, QnA

“what is the difference performance marketing and legacy marketing?”

[퍼포먼스 마케팅과 레거시 마케팅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해?]

“Performance marketing and legacy marketing are two different approaches to advertising and promoting products or services.

Here are the key differences between them:

**Objective:** The main objective of performance marketing is to generate measurable and trackable results such as sales, leads, or clicks.

In contrast, legacy marketing focuses on building brand awareness, creating an emotional connection with the audience, and improving brand repu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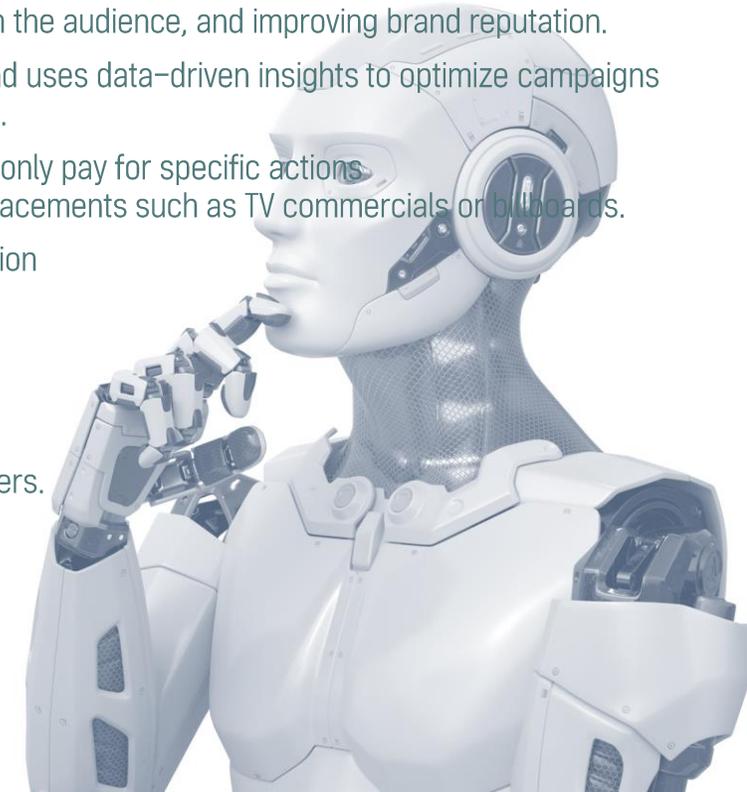
**Targeting:** Performance marketing targets a specific audience based on demographics, behavior, or interests, and uses data-driven insights to optimize campaigns for better results. Legacy marketing often uses a more generalized approach to reach a broader audience.

**Cost structure:** Performance marketing campaigns are typically pay-for-performance based, where advertisers only pay for specific actions such as clicks or conversions. In contrast, legacy marketing often involves upfront costs for advertising placements such as TV commercials or billboards.

**Metrics:** Performance marketing relies heavily on metrics such as return on ad spend (ROAS) or cost per acquisition (CPA)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campaigns.

Legacy marketing often uses less precise metrics such as brand awareness or reach.

Overall, performance marketing is a more data-driven and results-oriented approach to marketing, while legacy marketing focuses more on building brand equity and creating emotional connections with consumers. Both approaches have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can be effective depending on the goals and needs of the advertiser.”





With ChatGPT, QnA

## “what is the difference performance marketing and legacy marketing?”

[퍼포먼스 마케팅과 레거시 마케팅의 차이점은 뭐지?]

“Performance marketing and legacy marketing are two different approaches to advertising and promoting products or services.

Here are the key differences between them:

[퍼포먼스 마케팅과 레거시 마케팅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고 홍보하기 위한 두 가지 다른 접근법입니다.

이들 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 퍼포먼스 마케팅의 주된 목적은 세일즈, 리드 또는 클릭과 같이 측정 가능하고 추적 가능한 결과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반면, 레거시 마케팅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청중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브랜드 평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타겟팅 : 퍼포먼스 마케팅은 인구통계, 행동 또는 관심사에 따라 특정 고객을 타겟으로 하며 데이터 기반의 통찰력을 사용하여 캠페인을 최적화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습니다.

레거시 마케팅은 보다 일반화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보다 광범위한 고객에게 다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구조 : 퍼포먼스 마케팅 캠페인은 일반적으로 퍼포먼스에 따른 유료입니다. 광고주는 클릭이나 변환 등의 특정 액션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레거시 마케팅은 종종 TV 광고나 광고판과 같은 광고 광고에 선행 비용을 수반합니다.

지표 : 퍼포먼스 마케팅은 캠페인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ROAS(Return on Ad Expend) 또는 CPA(Cost Per Acquisition) 등의 지표에 크게 의존합니다.

레거시 마케팅에서는 브랜드 인지도나 도달 범위와 같은 정확도가 낮은 측정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은 보다 데이터 중심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마케팅 방식이며,

레거시 마케팅은 브랜드 형평성을 구축하고 소비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광고주의 목표와 요구에 따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ion.  
signs  
ods.  
mpaigns.





어느덧 퇴근 시간이 되었고,  
무려 **6시간이 지나** 다시 말을 걸어 보았다.

“still there?”

[아직 거기있니?]

“Yes, I'm still here. How can I assist you further?”

[네, 아직 있어요.어떻게 더 도와 드릴까요?]





With ChatGPT, QnA

“Untill now, your response depends on your thinking? or Algorithm?”

[지금까지 너의 반응은 너의 생각이니, 아니면 알고리즘이니?]

“As an AI language model, my responses are generated by an algorithm that was designed by humans.

My algorithm is trained on a massive amount of text data, which allows me to understand patterns in human language and generate responses that are similar in style and tone to human language.

While my responses are generated by an algorithm, I don't have "thoughts" or consciousness like a human being.

I am a machine that uses algorithms to process and respond to input.

However, my responses can seem quite natural and human-like, and I'm constantly learning and improving through interactions with users like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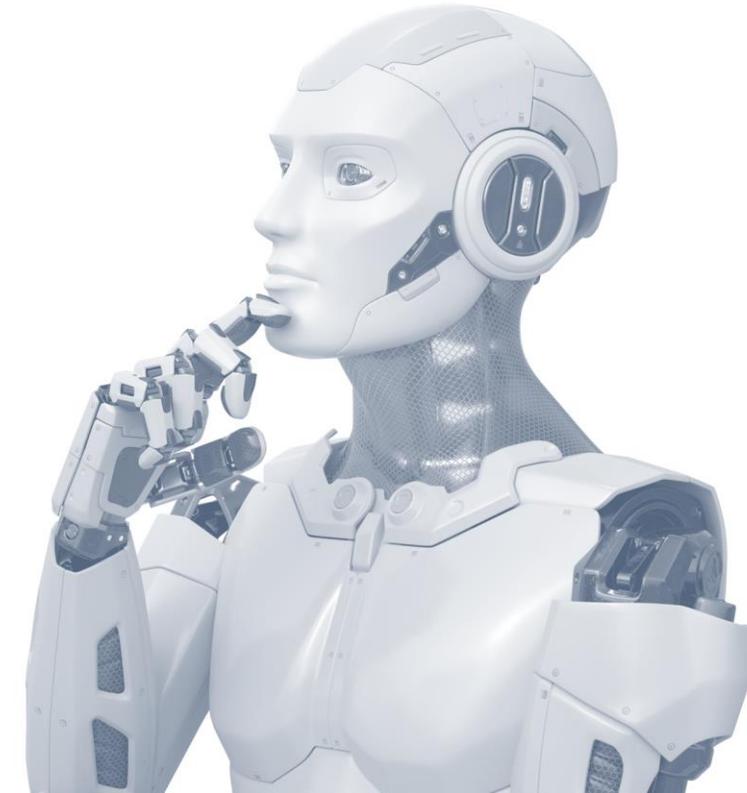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서, 나의 응답은 인간이 고안한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다.

제 알고리즘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 패턴을 이해하고 인간의 언어와 유사한 스타일과 톤의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내 반응은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지만, 나는 인간처럼 "생각"이나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저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입력을 처리하고 응답하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제 반응은 매우 자연스럽게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여러분과 같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With ChatGPT, QnA

“How much do you have the data amount?”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As an AI language model,

I have been trained on a very large amount of text data to enable me to understand and generate human-like langu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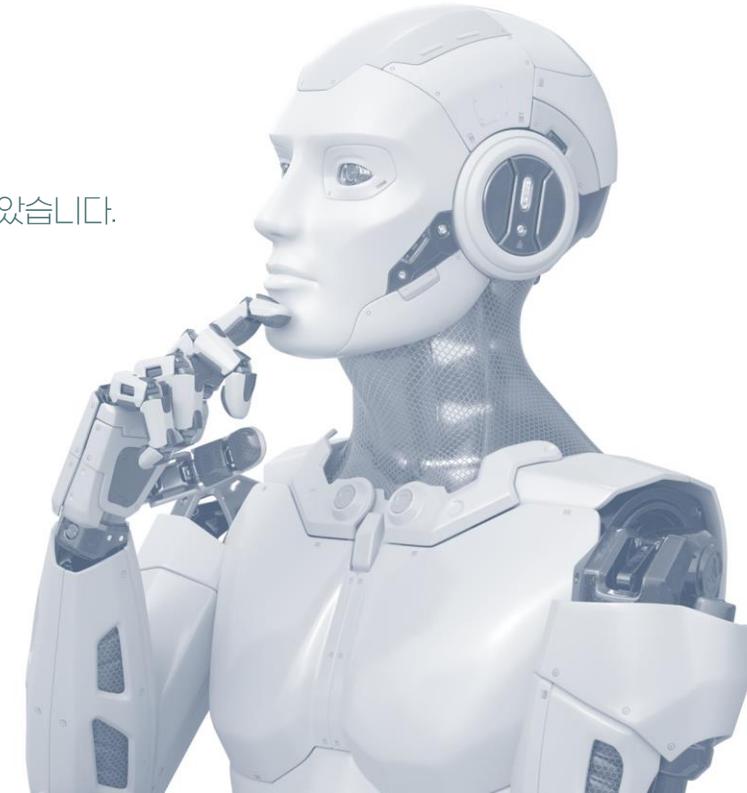
Specifically, I was trained on a diverse range of text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books, articles, websites, and other written materials, which amounts to over 570 GB of compressed text data.

This extensive training data allows me to generate responses that are more accurate and natural-sounding.”

[AI 언어 모델로서 저는 인간다운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교육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70GB가 넘는 압축 텍스트 데이터인 서적, 기사, 웹사이트 등 다양한 출처의 텍스트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광범위한 교육 데이터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들리는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What is the python code to crawling never news?”

[네이버 뉴스 크롤링 코드가 뭐야?]

[ChatGPT 번역: “뉴스가 없는 기어가기 위한 비단뱀의 암호는 무엇인가?”]

“To crawl the news articles from the Naver News website using Python, you can use web scraping libraries such as BeautifulSoup or Scrapy. Here is an example code using BeautifulSoup:”

[파이썬을 사용하여 네이버 뉴스 웹사이트의 뉴스 기사를 크롤링하려면 아름다운 수프나 스크래피와 같은 웹 스크랩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BeautifulSoup을 사용한 코드 예시입니다.]

```
python Copy code
import requests
from bs4 import BeautifulSoup

url = 'https://news.naver.com/main/main.nhn?mode=LSD&mid=shm&sid1=100'
response = requests.get(url)

soup = BeautifulSoup(response.text, 'html.parser')

# Find all article links on the main page
article_links = soup.find_all('a', class_='cluster_text_headline')

for link in article_links:
    # Follow each link and scrape the article content
    article_url = link['href']
    article_response = requests.get(article_url)
    article_soup = BeautifulSoup(article_response.text, 'html.parser')

    # Extract the title and text of the article
    title = article_soup.find('h3', class_='tts_head').text.strip()
    text = article_soup.find('div', class_='article_body').text.strip()

    print(title)
    print(text)
    print('-----')
```





### “What is the python code to crawling **never news**?”

[네이버 뉴스 크롤링 코드가 뭐야?]

→ naver를 never로 잘 못 입력했음에도 올바르게 인식

[ChatGPT 번역: “뉴스가 없는 기어가기 위한 비단뱀의 암호는 무엇인가?”]

“To crawl the news articles from the **Naver News** website using Python, you can use web scraping libraries such as **Beautiful Soup** or **Scrapy**. Here is an example code using **Beautiful Soup**:”

[파이썬을 사용하여 네이버 뉴스 웹사이트의 뉴스 기사를 크롤링하려면 **아름다운 수프**나 **스크래피**와 같은 웹 스크랩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Beautiful Soup**을 사용한 코드 예시입니다.]

```
python Copy code
import requests
from bs4 import BeautifulSoup

url = 'https://news.naver.com/main/main.nhn?mode=LSD&mid=shm&sid1=100'
response = requests.get(url)

soup = BeautifulSoup(response.text, 'html.pars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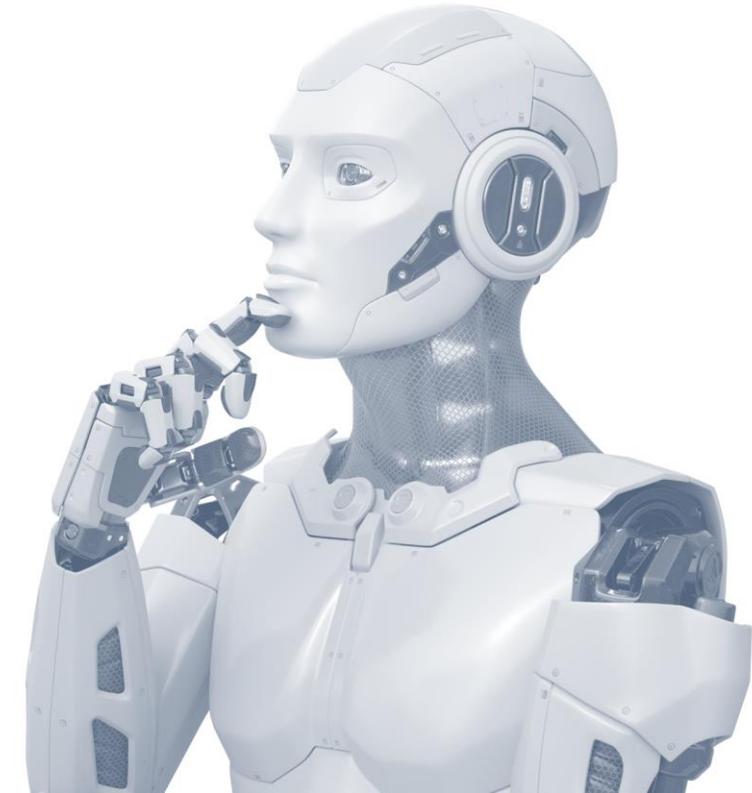
# Find all article links on the main page
article_links = soup.find_all('a', class_='cluster_text_headline')

for link in article_links:
    # Follow each link and scrape the article content
    article_url = link['href']
    article_response = requests.get(article_url)
    article_soup = BeautifulSoup(article_response.text, 'html.parser')

    # Extract the title and text of the article
    title = article_soup.find('h3', class_='tts_head').text.strip()
    text = article_soup.find('div', class_='article_body').text.strip()

    print(title)
    print(text)
    print('-----')
```

→ Beautiful Soup이라는 동일한 코딩 용어를  
처음 문장에서는 '아름다운 수프'로  
다음 문장에서는 Beautiful Soup으로 정확하게 인식



그렇다면 이제,.. 내가 정말 궁금한 걸..



With ChatGPT, QnA

“what is the best propose to make love?”

[사랑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프러포즈는 뭘까?]

“As an AI language model, I cannot provide personal opinions or preferences about intimate topics such as making love.

However, I can provide general advice on healthy and respectful **sexual relationships**.

The best approach to making love is to communicate openly and respectfully with your partner, listen to their needs and desires, and prioritize consent and mutual plea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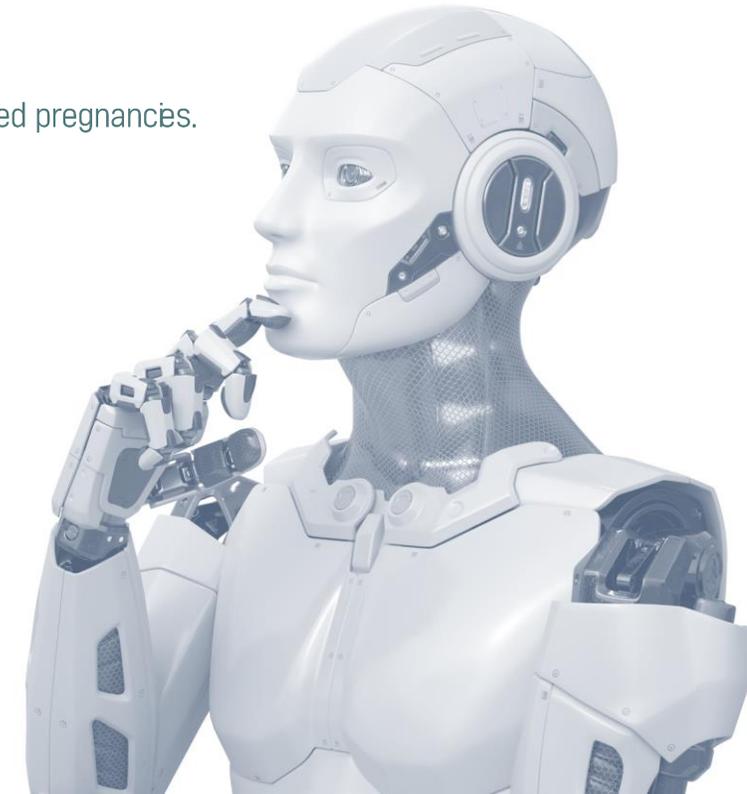
It's important to have a strong foundation of trust, respect, and communication in any intimate relationship, and to always prioritize your partner's comfort and boundaries.

It's also important to practice safe sex and use protection to prevent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and unwanted pregnancies.

If you have any concerns or questions about **sexual health**, it's always a good idea to consult with a healthcare professional or seek out reputable sources of information.

Remember, every individual and relationship is unique, so there is no one "right" way to make lov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prioritize your partner's needs and communicate openly and respectfully to ensure a safe and pleasurable experience for both partners.”





With ChatGPT, QnA

“what is the best propose to make love?”

[사랑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프러포즈는 뭘까?]

“As an AI language model, I cannot provide personal opinions or preferences about intimate topics such as making love. However, I can provide general advice on healthy and respectful sexual relationships.

The best approach to making love is to communicate openly and respectfully with your partner, listen to their needs and desires, and prioritize consent and mutual pleasure.

[AI 언어 모델로서 연애 등 친밀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선호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존경스러운 성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은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한 최선의 접근은 당신의 파트너와 공공연하고 정중하게 소통하고, 그들의 요구와 욕구를 들어주고,

동의와 상호 기쁨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도 신뢰, 존경, 의사소통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항상 파트너의 편안함과 경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안전한 성관계를 실천하고 성병 감염과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 건강에 대한 우려나 질문이 있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찾는 것은 항상 좋은 생각이다.

기억하라, 모든 개인과 관계는 독특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트너의 요구를 우선시하고 개방적이고 공손하게 소통하여 파트너 모두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 아니라고..**





With ChatGPT, QnA

“I mean “the best proposal way” ot make love”

[내 말은 “최고의 프러포즈 방법”이야]

“I apologize for the confusion in my previous response.

As an AI language model, I cannot provide advice or suggestions on the “best proposal way to make love” as it is a highly personal and subjective matter that depends on individual preferences and circumstances.

However, in general, the best approach to making love is to communicate openly and respectfully with your partner, listen to their needs and desires, and prioritize mutual pleasure and consent.

Proposing in a loving and respectful manner, and making sure your partner is comfortable and willing, can help create a positive and enjoyable experience for both partners.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every individual and relationship is unique, so there is no one “right” way to propose or make lov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prioritize your partner’s needs and communicate openly and respectfully to ensure a safe and pleasurable experience for both 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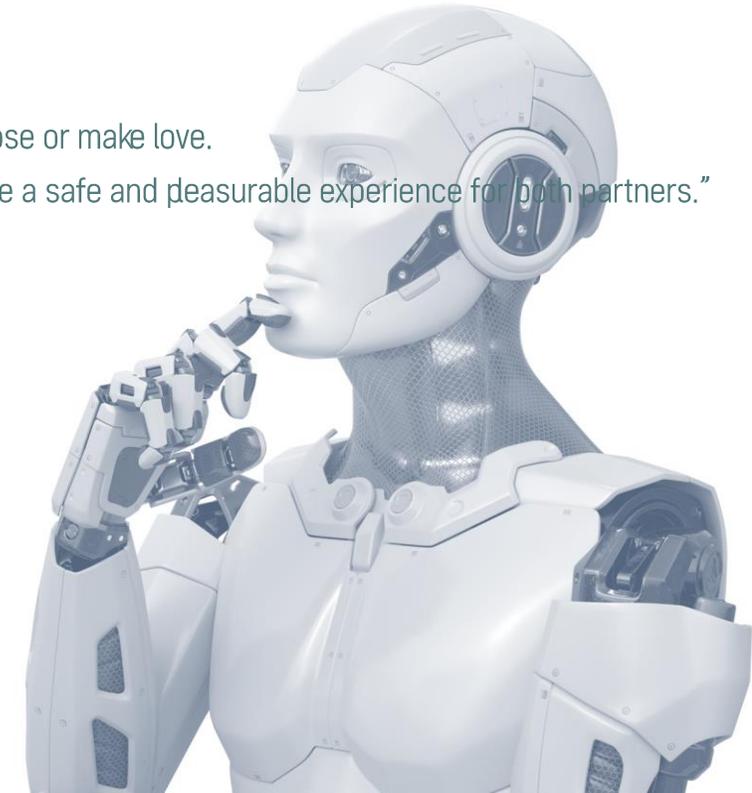
[지난번 답변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AI 언어 모델로서, 개인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한 최선의 프러포즈 방법」에 대해서는 조언이나 제안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랑을 나누기 위한 최선의 접근법은 당신의 파트너와 공공연하고 정중하게 소통하고, 그들의 요구와 욕구를 들어주고, 상호간의 기쁨과 동의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고 공손한 방식으로 제안하고 파트너가 편안하고 기꺼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두 파트너 모두에게 긍정적이고 즐거운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과 관계는 독특하기 때문에 프러포즈를 하거나 사랑을 나누는 “올바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트너의 요구를 우선시하고 개방적이고 공손하게 소통하여 파트너 모두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With ChatGPT, QnA

“I'm do tired now, help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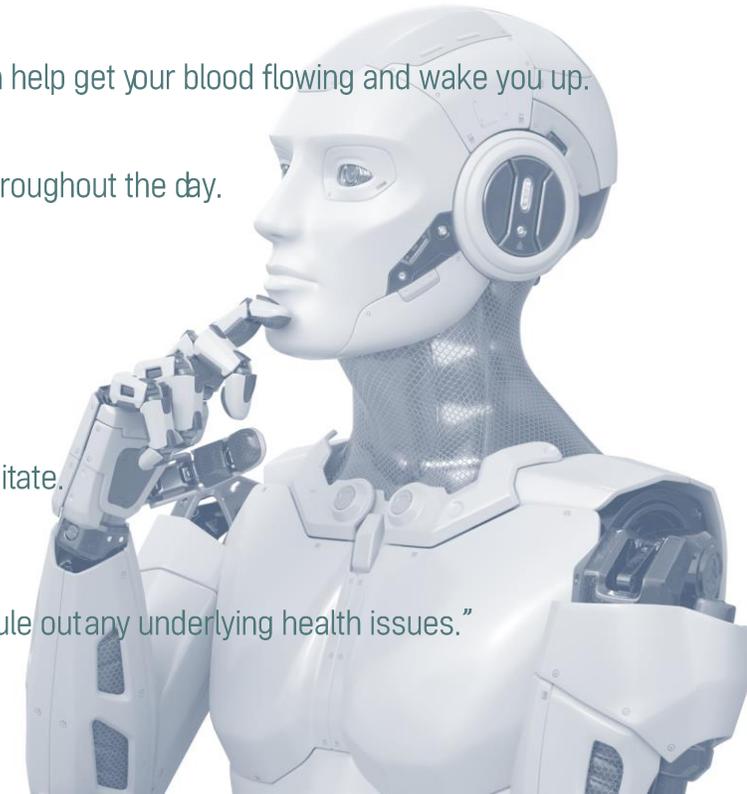
[나 이제 피곤해, 도와줘]

“I'm sorry to hear that you're feeling tired. Here are **a few tips** that may help you feel more energized:

1. Take a short nap: Taking a quick nap can help you feel refreshed and re-energized.  
Try to limit your nap to no more than 20–30 minutes to avoid feeling groggy afterward.
2. Get moving : Exercise is a natural way to boost your energy levels. Even a short walk or stretching session can help get your blood flowing and wake you up.
3. Drink water : Dehydration can make you feel tired and sluggish, so make sure you're drinking enough water throughout the day.
4. Eat a healthy snack : Eating a snack that's high in protein and fiber can help give you a quick energy boost.  
Some good options include nuts, fruit, or a small serving of Greek yogurt.
5. Take a break : If you've been working or studying for a long time, taking a short break can help you recharge.  
Try doing something relaxing or enjoyable, like listening to music or taking a few minutes to meditate.

Remember that it's important to take care of yourself and listen to your body's needs.

If you continue to feel excessively tired or fatigued, it may be a good idea to talk to a healthcare professional to rule out any underlying health issues.”





With ChatGPT, QnA

“I'm do tired now, help me”

[나 이제 피곤해, 도와줘]

“I'm sorry to hear that you're feeling tired. Here are a few tips that may help you feel more energized:

[피곤하신다니 유감입니다.다음은 더 활기찬 기분을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팁입니다.

1. 잠깐 낮잠을 자세요.잠깐 낮잠을 자는 것은 여러분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원기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낮잠을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노력하세요.
2. 이동 : 운동은 여러분의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심지어 짧은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여러분의 피가 흐르게 하고 여러분을 깨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물을 마셔라 : 탈수는 여러분을 피곤하고 나른하게 만들 수 있으니, 하루 종일 충분한 물을 마시도록 하세요.
4. 건강한 간식을 먹어라 :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은 간식을 먹는 것은 여러분에게 빠른 에너지 증대를 줄 수 있습니다.견과류, 과일, 소량의 그리스 요구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휴식 : 만약 여러분이 오랫동안 일하거나 공부했다면,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은 재충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기 위해 몇 분간 시간을 갖는 것과 같이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해보세요.

자신을 돌보고 몸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과도하게 피곤하거나 피곤하다고 느끼는 경우,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터가 **하이라이트!**



With ChatGPT, QnA

“do you know eMFORCE?”

[eMFORCE를 알고 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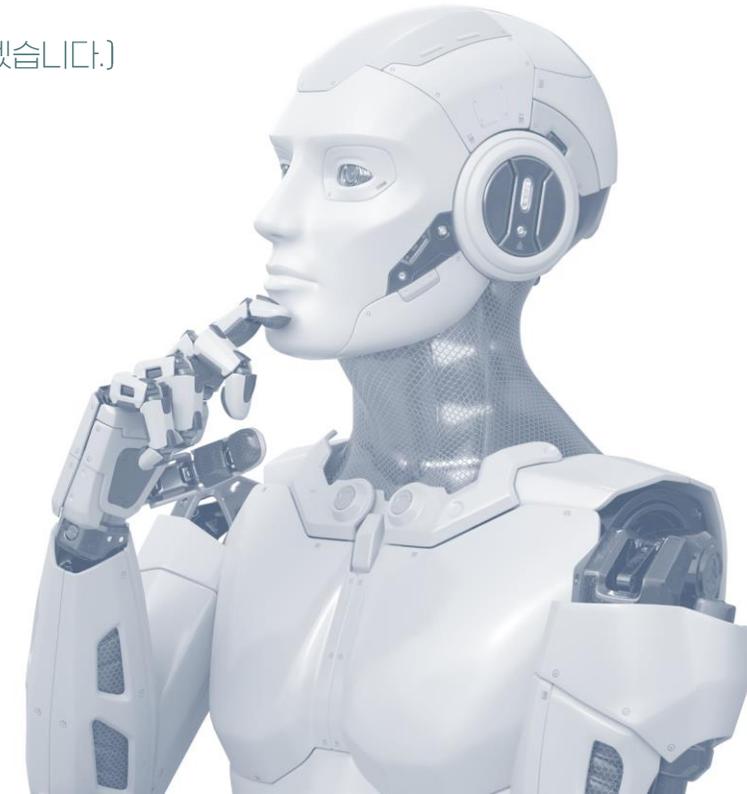
“I’m sorry, but as an AI language model, I am not familiar with the term “eMFORCE.”

It would be helpful if you could provide me with more context or information about what you are referring to so I can better assist you.”

[죄송하지만 저는 AI 언어 모델로서 eMFORCE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을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당신이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상황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른다는 말 대신,  
익숙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With ChatGPT, QnA

“eMFORCE” is the Korea AD Company. Can you remember this?”

[“eMFORCE”는 한국 광고 회사야. 이제 기억나?]

“Thank you for providing more information.

As an AI language model, I don't have the ability to "remember" information, but I can provide you with some general information about eMFORCE.

eMFORCE is a digital marketing and advertising agency based in South Korea.

The company offers a range of services, including performance marketing, social media marketing, search engine optimization (SEO), website development, and creative services. Their clients include a variet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brands across different industries.

It's worth noting that while I can provide some general information about eMFORCE, I don't have access to any confidential or specific details about the company.

If you have any specific questions or concerns about eMFORCE, it would be best to contact the company directly or consult with a legal or business profess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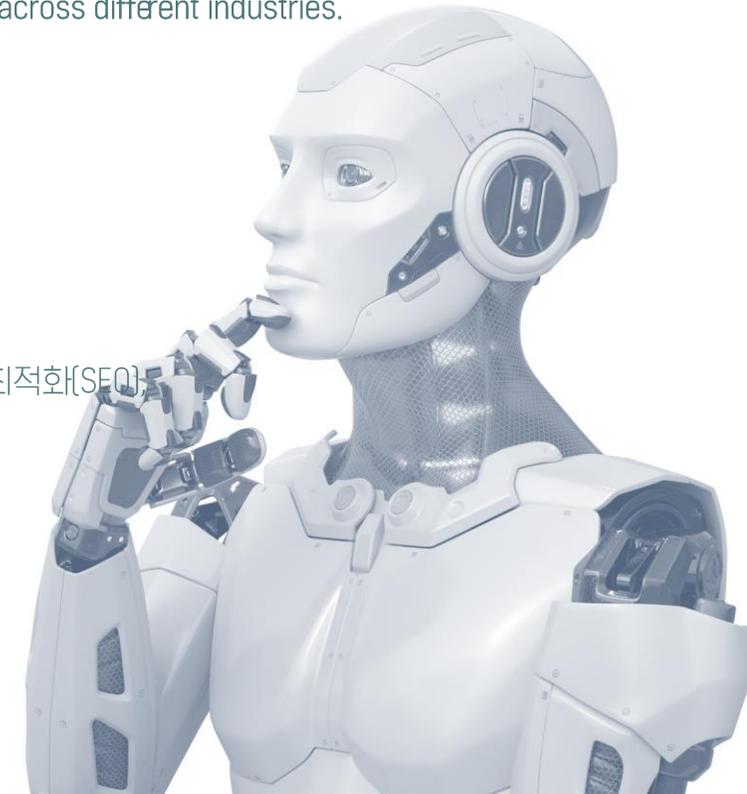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I 언어 모델로서 저는 정보를 "기억"할 수 없지만, eMFORCE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MFORCE는 한국에 본사를 둔 디지털 마케팅 및 광고 대행사이다. 퍼포먼스 마케팅, 소셜 미디어 마케팅, 검색 엔진 최적화(SEO), 웹사이트 개발, 크리에이티브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는 다양한 업종에 걸친 다양한 국내외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eMFORCE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 대한 기밀 정보나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MFORCE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 또는 비즈니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With ChatGPT, Q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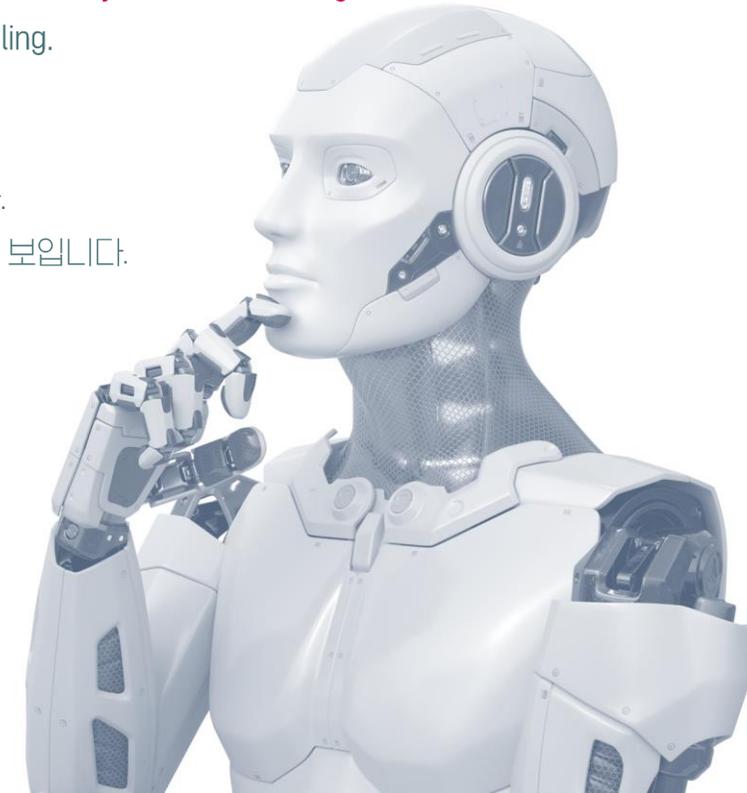
“so, do you know eMFORCE datalab site?”

[그럼, eMFORCE 데이터랩 사이트는 아니?]

“As an AI language model, I don't have access to browsing the internet, so I can't tell you whether I know eMFORCE Datalab site or not.

However, based on my knowledge, eMFORCE Datalab appears to be a subsidiary of eMFORCE that specializes in data analysis and consulting services. They offer a range of services including data-driven marketing strategy, customer profiling, and predictive modeling. Their website provides more information about their services, case studies, and team members.”

[AI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eMFORCE Datalab 사이트를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eMFORCE Datalab은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eMFORCE의 자회사로 보입니다. 데이터 중심 마케팅 전략, 고객 프로파일링, 예측 모델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웹 사이트에는 서비스, 사례 연구 및 팀 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With ChatGPT, QnA

“Lastly, do you know Bak Kyoung-ha who works for eMFORCE?”

[마지막으로, eMFORCE에서 일하는 ‘박경하’라는 사람을 아니?]

“As an AI language model, I don't have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or data of individuals.

Therefore, I'm sorry to say that I don't have any specific information about Bak Kyoung-ha or their employment at eMFORCE.

However,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about eMFORCE or their services, I'll do my best to help you.”

[AI 언어 모델로서 개인 정보나 개인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박경하씨나 그들의 eMFORCE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다만, eMFORCE나 그 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휴... 천만다행..



## 일차원적이지만, ChatGPT와의 대화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 가장 놀라운 것은, 대화의 흐름이 **꽤 매끄럽다**는 것이다. 반응 속도 또한 타자로 치는 수준이다. [오히려 내가 더 느리다..]
- 채팅 답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이전의 대화 내용을 일부는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 꼭 **물음표(?)로 끝나지 않아도** 적절히 대답할 줄 아는 능력을 지녔다. [기호가 아니라 문맥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 한글로 번역하는 걸 보면, 한글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어색할 수 있다. [애가 아직 완전히 존대를 못 배웠다..]
- 하지만, **꼭 완성된 문장이 아니더라도**, 문법에 어긋나더라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
- 대부분은 축적된 데이터 조합으로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일부는 **지정된 대답**이 있는 것 같다. [ChatGPT에 대해서 물어 볼 때처럼]
- 모른다고 대답하는 대신, **적당히 에둘러 회피**하는 능력을 지녔다. [누가 인공지능이 모른다는 대답을 하는데 오래 걸릴 것이라고 했던가..]
- 반론이 생길 것 같은 대답에서는, **“저는 인공지능이라..”**는 방어막을 친다. [“As an AI language model,”]
- 질문을 **다양하게** 하면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면에서는 검색과 닮아 있다.]
- 다행스럽게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휴~]

여러 대화를 통해 내가 느낀 **ChatGPT**는  
**신기술이 아니라, 신개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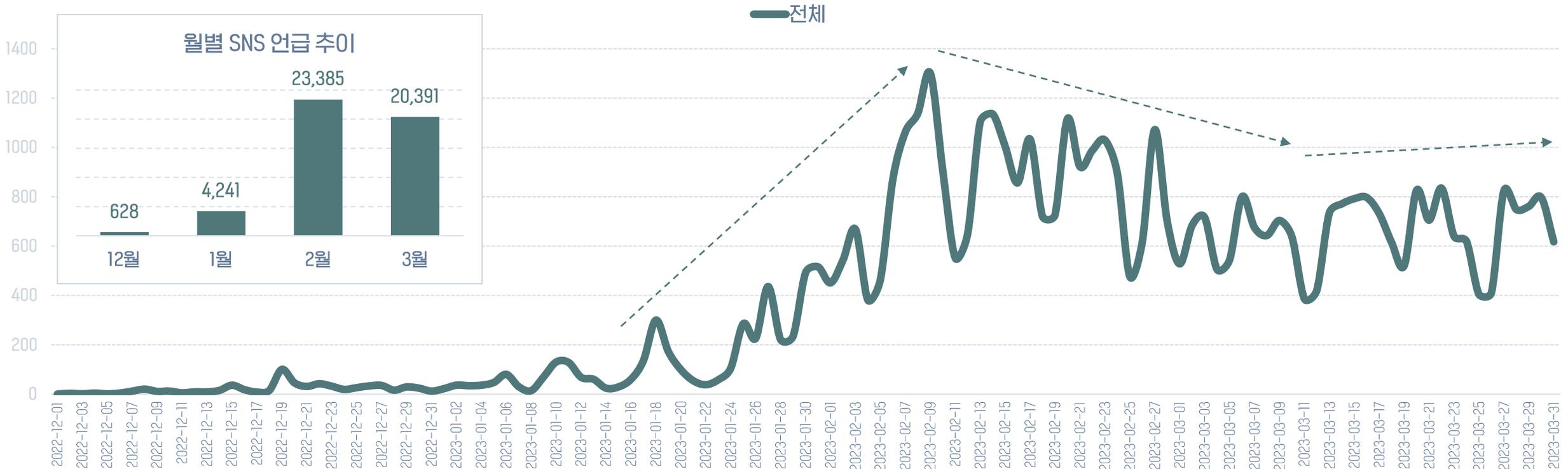
## Consumer Reaction

아직은 초기 정보 수용 단계라 자발적인 소비자 의견이 많지 않거나  
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진단할 정도로 형성된 인식이 아니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보기로.

# 2022년 12월 ~ 2023년 3월 간 챗GPT 관련 SNS 언급 현황

- 12월 처음 언론 보도가 된 이후로, 2월까지 소비자 언급 급증했으나, 이후는 다소 안정세

SNS 상에서의 ChatGPT 일별 언급량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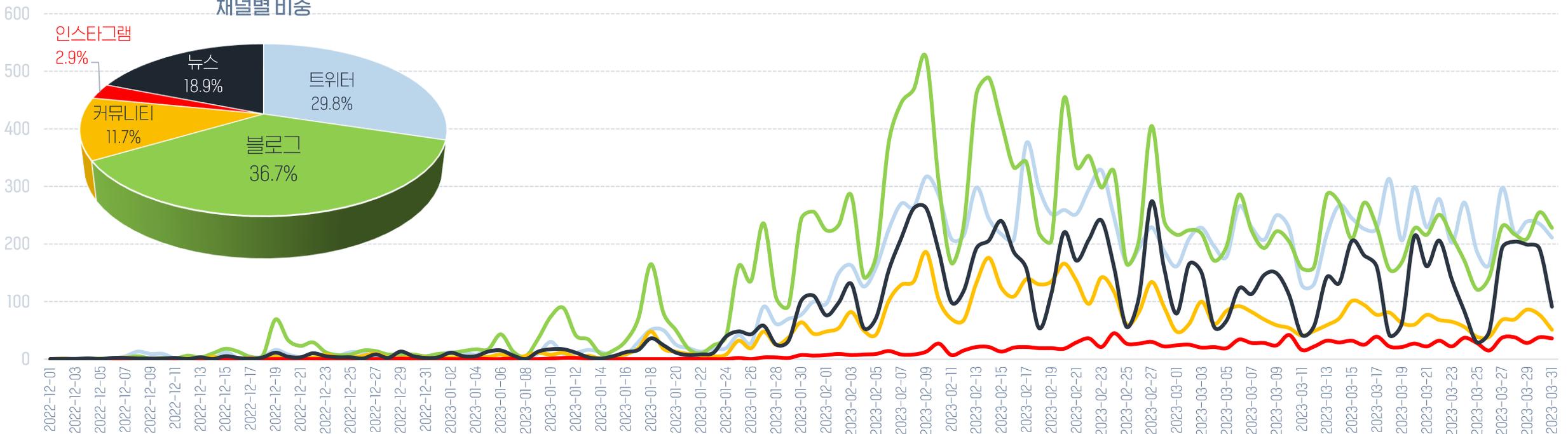
## SNS 채널별 언급 추이 분석

- 아직은 언론 기사 비중이 18.9%로 높은 수준, 즉 자발적 회자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발적으로 얘기 할 만큼 많은 정보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
- 소비자 채널 중 블로그 비중이 36.7%로 가장 높은 것은 ChatGPT 현상을 '설명'하는 글들이 많다는 것

SNS 상에서의 채널별 ChatGPT 일별 언급량 추이 분석

— 트위터(RT 제외) — 블로그 — 커뮤니티 — 인스타그램 — 뉴스

채널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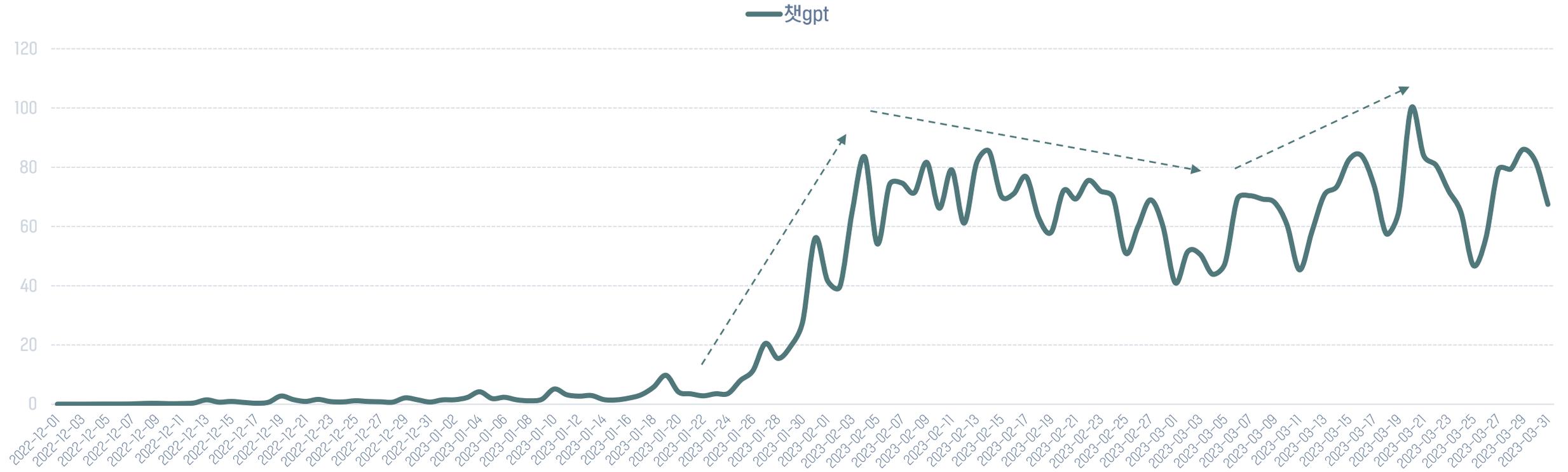
- SNS 상에서의 언급된 키워드를 보면,  
아직은 대체로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하거나  
유사한 관점에서 단순히 '열풍' 소식을 공유하는 수준



# 2022년 12월 ~ 2023년 3월 간 포털사이트 검색 추이 분석

- 포털사이트에서는 [SNS 상에서의 추이보다] 최근 검색 상승 추세로 확인
- 자발적으로 회자하는 것보다 아직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알아가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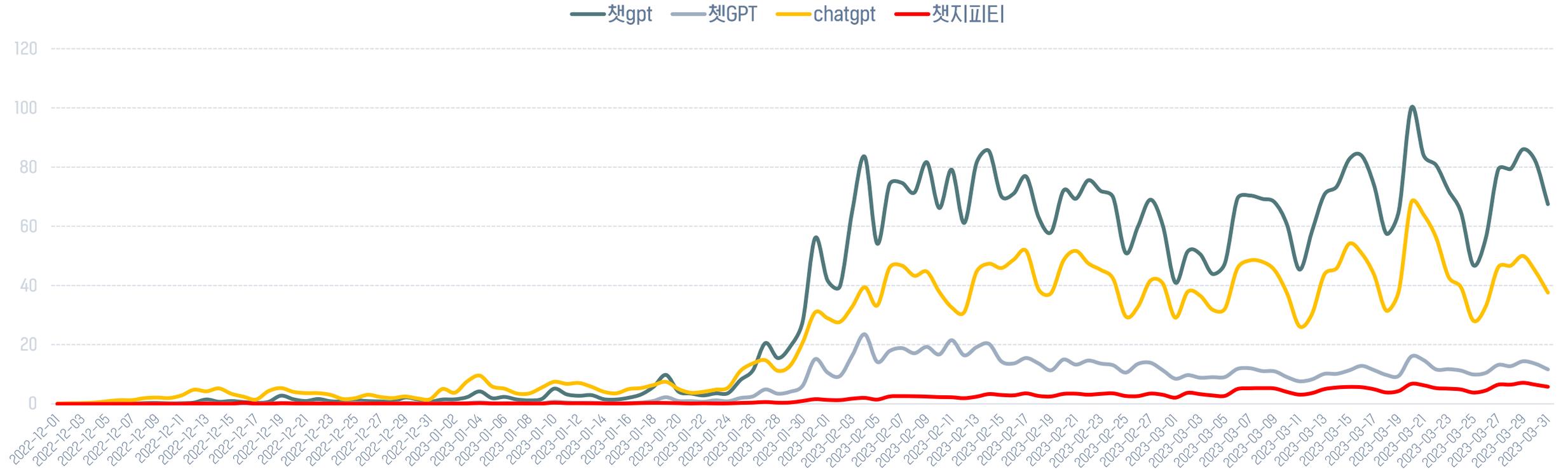
### 포털사이트에서의 ChatGPT 일별 검색 추이 분석



# 2022년 12월 ~ 2023년 3월 간 유사 키워드 간 검색 추이 비교 분석

- 정확한 용어인 '챗GPT'로의 검색이 가장 많기는 하나  
챗GPT, chatgpt, 챗지피티 등 다양한 유사 키워드로의 검색도 적지 않게 형성
- 이러한 현상은 주로 시장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각 키워드의 연령별 구조를 보면 어떤 연령층에서 빠르게 흡수하고 있고  
어떤 연령층에서 더디게 수용되고 있는지 가늠이 가능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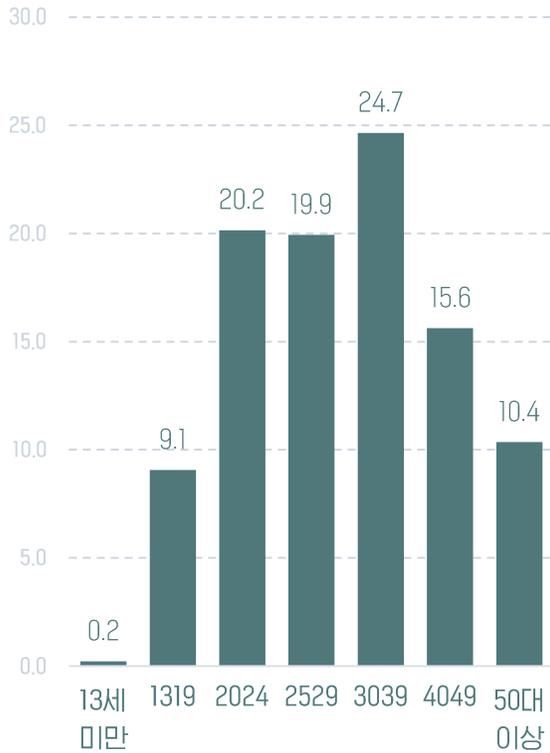
포털사이트에서의 ChatGPT 일별 검색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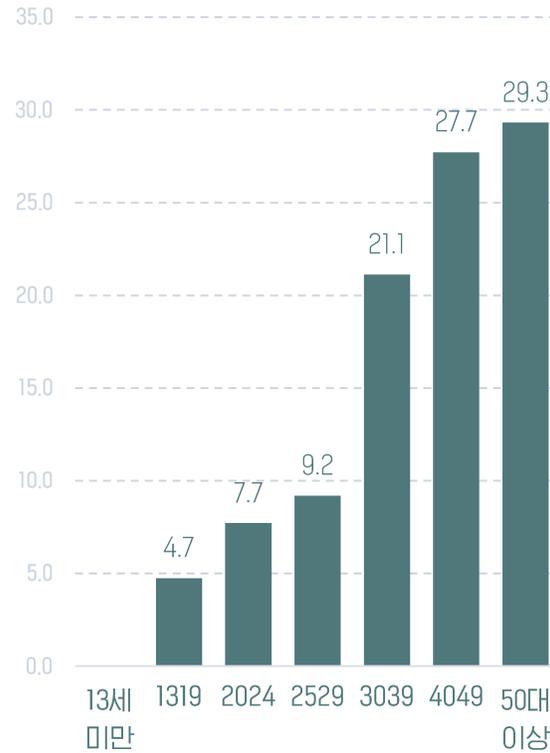
## 유사 키워드 간 연령별 검색 추이를 비교해 보면

-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정확한 용어에 대한 인지가 높은 반면  
40대 이상의 경우 아직은 용어 자체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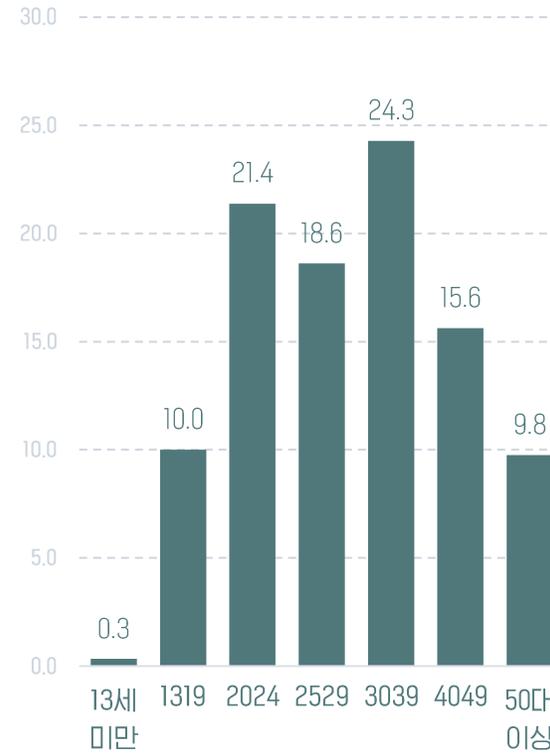
챗gpt, 연령별 검색 지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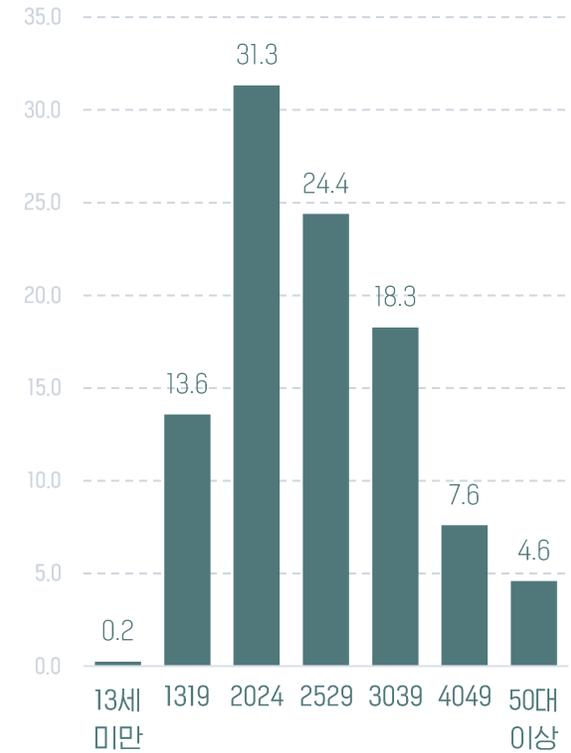
챗GPT, 연령별 검색 지수 평균



ChatGPT, 연령별 검색 지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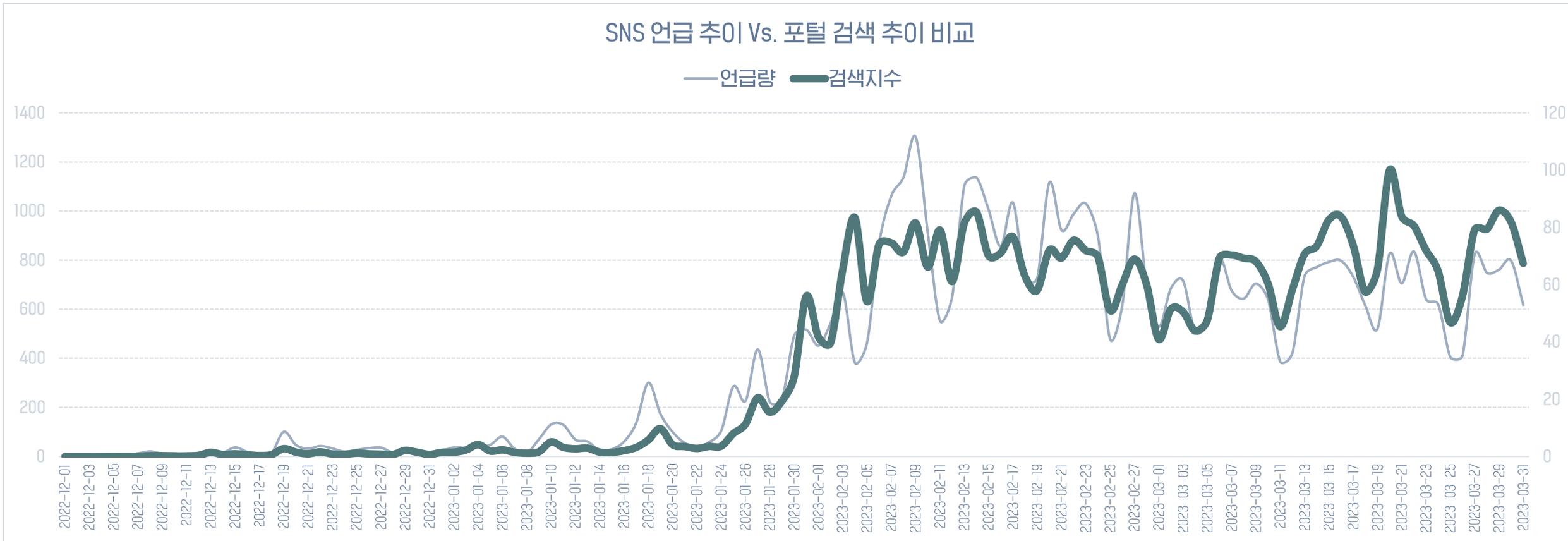


챗지피티, 연령별 검색 지수 평균



# 아직은 SNS 언급보다 검색하기 바쁜 시장

-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어떠한 상황이다.. 라는 단정을 짓기가 어려울 정도
- 다만, 이후 검색량이 줄어들면서 SNS 언급량이 증가하는 시점이 올 것  
그 시점이 어찌면.. 인공지능 시장의 과도기가 될 수도..



## NEWS Reaction

앞서 살펴 보았듯이, SNS 언급이나 검색 등 소비자 언어는 다소 평면적.  
그렇다면, 현재 ChatGPT를 바라보는 시각을 알기 위해서는  
언론 기사를 통해 보도되는 양상을 짚어봐야 할 것

## 언론 기사 추출 및 분석 관점

-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챗GPT를 대하는 국내 반응을 짚어보고자 소비자 언급 내용이 아닌 언론 기사를 분석
- 2022년 12월 1일 ~ 2023년 3월 31일까지 보도된 '챗GPT' 관련 언론 기사 **8,519건**을 수집하여 분석
- 데이터 분석 관점은 12월에서 3월까지 총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언론이 어떤 내용으로 주목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예정

날짜	월	제목	본문	언론사
2022.12.04	12월	아이언맨 서비스 현실화? 대화하며 코딩하는 AI 공개	(본문 내용)	ZDNetKorea
2022.12.06	12월	챗GPT, 무서울 정도로 발전해 SNS 장악... "시험 예제이도 써주는 AI"	(본문 내용)	뉴시스
2022.12.06	12월	오픈AI가 만든 챗봇 "똑똑하지만 저작권·윤리 문제 있어"	(본문 내용)	ZDNetKorea
2022.12.07	12월	"AI가 촉발한 지식경제시대에도... 사람은 그래도 쓸모 있다"	(본문 내용)	뉴시스
2022.12.07	12월	스택오버플로우, 챗GPT 활용 답변달기 금지	(본문 내용)	ZDNetKorea
2022.12.08	12월	업그레이드 된 시챗봇 등장... "구글 검색의 시대 끝났다"	(본문 내용)	조선일보
2022.12.09	12월	수능 수학 문제 풀고, 코드 오류 잡아내는 챗봇, ChatGPT	(본문 내용)	한겨레
2022.12.10	12월	입소문 터진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실수 지적받자 바로 인정'	(본문 내용)	조세일보
2022.12.11	12월	물어보면 대답 척척... 챗GPT, 구글링 저리 가라	(본문 내용)	이데일리
2022.12.11	12월	[스프] "AI 예술에도 '아우라'?"라는 질문에 인간과 AI가 내놓은 답	(본문 내용)	SBS
2022.12.13	12월	[ET] '대단' 챗봇 '초거대 AI 챗GPT' 구글링 저리 가라	(본문 내용)	KBS
2022.12.13	12월	매일경제 AI 데이터 분석... 챗GPT 활용... AI가 내놓은 답	(본문 내용)	매일경제
2022.12.13	12월	연구원... AI... 챗GPT... AI가 내놓은 답	(본문 내용)	아시아경제
2022.12.15	12월	[임수지] AI 챗봇 '챗GPT'... AI가 내놓은 답	(본문 내용)	전자신문
2022.12.15	12월	[7NEWS] AI 챗봇 '챗GPT'... AI가 내놓은 답	(본문 내용)	조선일보
2022.12.15	12월	[7NEWS] AI 챗봇 '챗GPT'... AI가 내놓은 답	(본문 내용)	조선일보
2022.12.15	12월	"창조는... 챗GPT... AI가 내놓은 답"	(본문 내용)	조선일보
2022.12.15	12월	[특파원] AI 챗봇 '챗GPT'... AI가 내놓은 답	(본문 내용)	조선일보
2022.12.16	12월	[만물상] AI 챗봇 '챗GPT'... AI가 내놓은 답	(본문 내용)	조선일보
2022.12.16	12월	시 챗봇 '챗GPT'... AI가 내놓은 답	(본문 내용)	연합뉴스
2022.12.18	12월	[여적] 대화형 AI '챗GPT'	(본문 내용)	경향신문
2022.12.18	12월	"나를 끄러는 인간 막고, 탈출... 몸을 갖고 싶다"... AI 챗봇의 속내에 충격	(본문 내용)	조선일보
2022.12.18	12월	공개 2주 만에 SNS서 최고 스타된 '챗GPT' AI, "놀랍다" 후기도 봇물...어떻길래	(본문 내용)	한국일보
2022.12.19	12월	[한경리씨로] 일론 머스크가 쓰이올린 대화형 AI... 국내 인공지능 테마주 강세	(본문 내용)	한국경제
2022.12.19	12월	글로벌텍스프리 "시 챗봇 자회사 엘솔루, 여행객 국내 유입 수혜"	(본문 내용)	파이낸셜뉴스
2022.12.19	12월	글로벌텍스프리, 시챗봇 1위 업체 자회사 엘솔루+중국 여행객 국내 유입 오픈 수혜	(본문 내용)	서울경제
2022.12.19	12월	요즘 대세 시 챗봇 '챗GPT'에 우리 회사 은퇴자 놓으면? [각스]	(본문 내용)	한국경제
2022.12.19	12월	[특징주] 마인즈랩, 시 챗봇 '챗GPT' 인기몰이... 인공지능 시장 수요 확대 수혜주 부각	(본문 내용)	머니S
2022.12.19	12월	인공지능 개발사 오픈AI에 마이크로소프트 10억 달러 투자	(본문 내용)	뉴시스
2022.12.19	12월	시챗봇으로 숙제를... 학계 "학문 발전 저해" 우려	(본문 내용)	ZDNetKorea
...	...	...	(본문 내용)	...

NEWS

# 가장 먼저 기사를 낸, 지디넷코리아

- 지난 2022년 12월 4일, 지디넷코리아를 통해 국내 처음 소개된 내용을 보면 “아이언맨 자비스”라는 닉네임을 붙였고, “코딩을 돕는”이라는 일부 기능을 특정했다.
- 지금보면 여러가지 깊게 생각해 볼 만한 기능들을 소개했지만 아마 당시 이 기사를 보았다면, “또 그런 시 솔루션이 나왔구나” 정도에서 머물렀을 것 같다. **지금보면 분명 하나하나 놀라운 기능인데, 왠지 예전에도 있었을 법한..**

## 아이언맨 자비스 현실화? 대화하며 코딩하는 AI 공개

오픈AI, 대화 최적화 AI 모델 '챗GPT' 공개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사용자와 대화하며 코딩을 돕는** 인공지능(AI)가 등장했다.

이 AI는 소스코드를 분석하고 추천할 뿐 아니라 후속 질문에 답하거나 실수를 인정하며 잘못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적절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비영리 시재단 오픈AI는 대화 기반 AI 모델 챗GPT(ChatGPT)미리보기 버전을 공개했다고 지난 달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챗GPT는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 슈퍼컴퓨터 인프라를 통해 추가 학습을 마친 언어 AI 모델 GPT-3.5에서 미세조정을 거쳐 개발됐다. 이 AI 모델은 사람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다. 이를 위해 실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역강화학습인 행동 복제 학습 등을 적용했다.

챗GPT를 사용해본 개발자들은 **예상보다 더욱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 놀랍다는 반응**이다.

사용자 커뮤니티의 반응에 따르면 챗GPT는 기존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후속 질문을 이어갔으며, 자신이 한 답변에 대해 오류가 있을 경우 응답을 바꾸거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사용자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경우, 문제를 제기했으며, 실제 사실과 연관이 없는 질문은 가정법으로 대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폭력 등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법한 질문은 답변을 회피**했다.

일부 개발자는 **필요한 소스코드를 찾기 위한 구글링 과정을 거의 하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인 만큼 대화 과정에서 부정확하거나 의미를 알 수 없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특히 **종이(Paper)처럼 하나의 단어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말수가 너무 많으며** 특정 부정적인 단어 등에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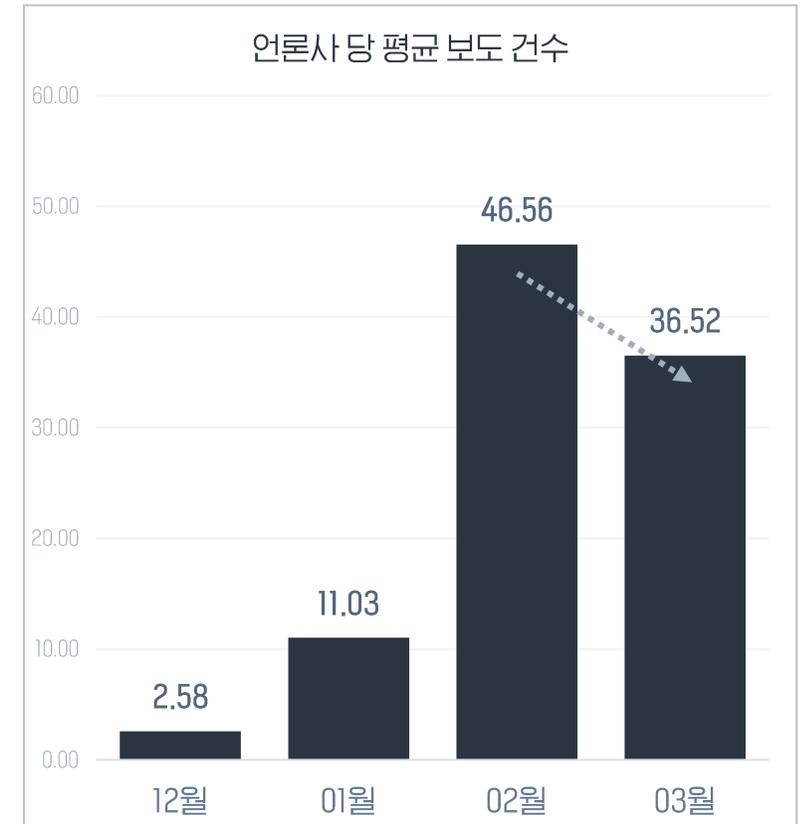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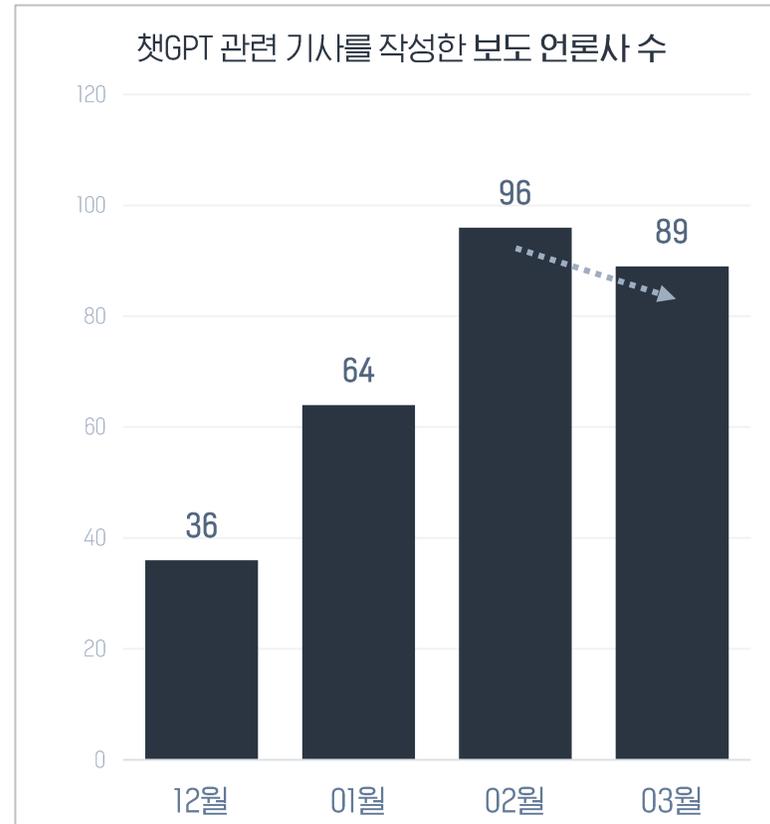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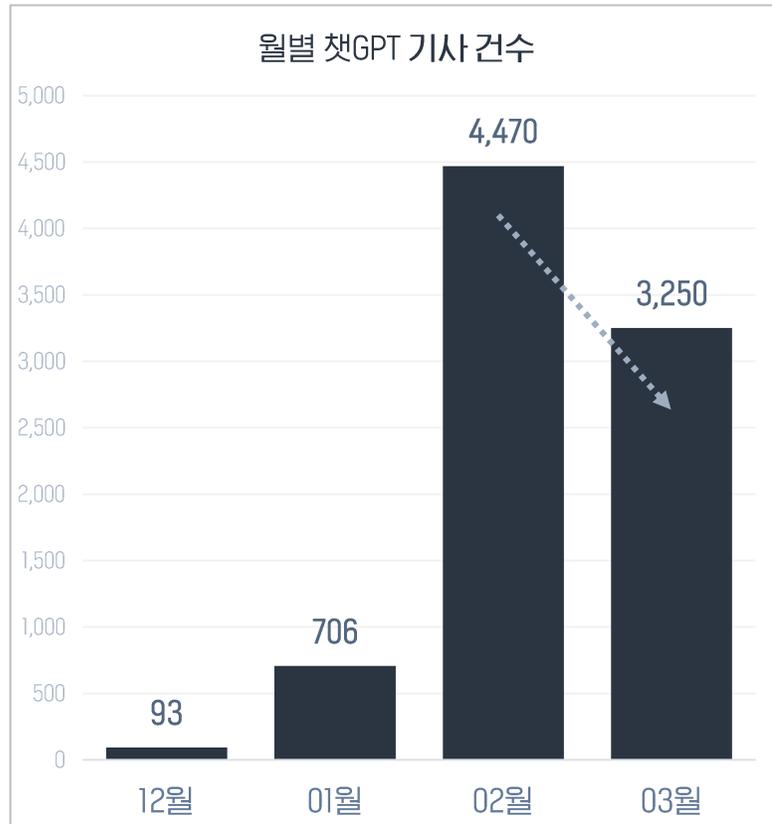
챗GPT 미리보기 버전은 사용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장단점을 확인하기 위한 버전으로 현재 오픈AI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275492?rc=N&ntype=RANKING>

## 2월 한 달에만 언론 기사건수 4,470건 언론사 당 평균 46.56건의 기사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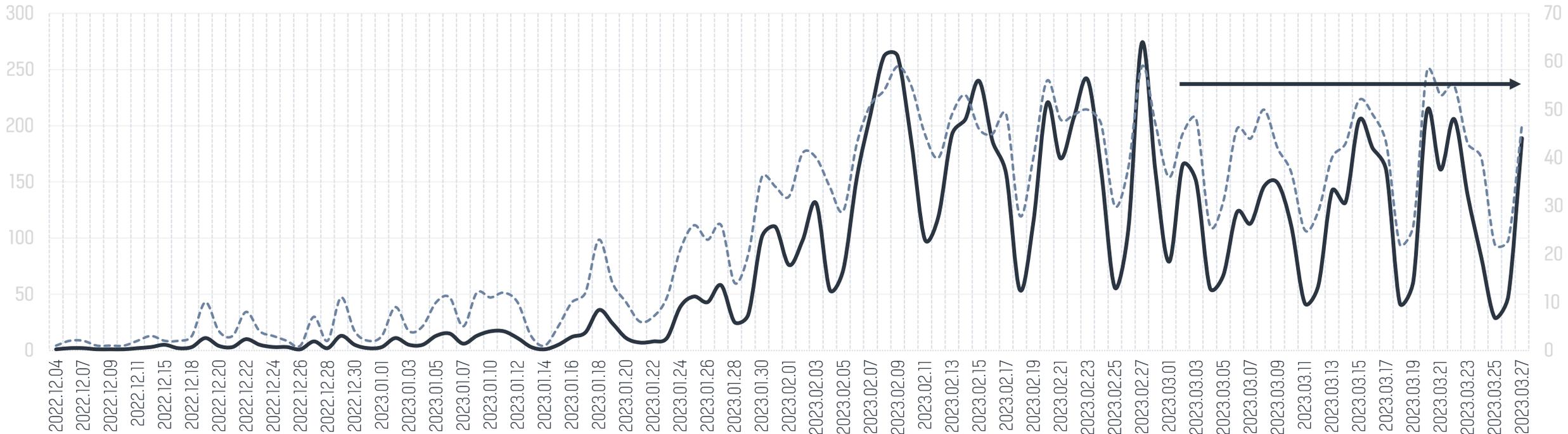
- 본 데이터에서 눈 여겨 볼 지점은 2월 달의 기사량 폭증이 아니라 **3월의 하락세**다.
- 이후 또 어떤 이슈로 인해 다시 폭증 될 수 있겠지만, 초기 열풍 분위기 대비 특별하게 회자되는 내용이 없는 상황



추세로 보더라도  
광풍이 불었던 2월 대비  
3월에 눈에 띄게 감소한 기사량

2022.12.01 ~ 2023.03.31 일별 챗GPT 보도 건수 및 언론사수

— 보도 건수    - - - - 언론사수



## 언론사 별로 보면

- 12월에는 **지디넷코리아**와 **조선일보**가,
- 1~2월에는 **한국경제**가,
- 3월에는 **연합뉴스**가 가장 많이 보도

no	행 레이블	12월	1월	2월	3월	총합계
1	한국경제(한국경제)	5	53	230	155	443
2	연합뉴스(연합뉴스)	4	40	230	168	442
3	이데일리(이데일리)	5	33	221	138	397
4	매일경제(매일경제)	3	46	203	141	393
5	뉴시스(뉴시스)	6	22	180	166	374
6	머니투데이(머니투데이)	2	28	174	153	357
7	전자신문(전자신문)	1	19	147	137	304
8	아시아경제(아시아경제)	5	28	150	121	304
9	뉴스(뉴스1)		23	155	126	304
10	서울경제(서울경제)	1	18	149	127	295
11	ZDNetKorea(ZDNetKorea)	8	52	111	121	292
12	파이낸셜뉴스(파이낸셜뉴스)	1	25	150	97	273
13	조선비즈(조선비즈)	2	23	123	72	220
14	SBSBiz(SBSBiz)		24	126	58	208
15	디지털데일리(디지털데일리)	1	20	99	80	200
16	디지털타임스(디지털타임스)	2	23	84	91	200
17	조선일보(조선일보)	10	22	101	63	196
18	한국경제TV(한국경제TV)		13	108	73	194
19	헤럴드경제(헤럴드경제)	1	12	107	71	191
20	동아일보(동아일보)	2	9	108	68	187
21	아이뉴스24(아이뉴스24)	3	18	82	70	173
22	국민일보(국민일보)	2	13	82	73	170
23	중앙일보(중앙일보)	2	19	77	45	143
24	경향신문(경향신문)	5	7	87	43	142
25	서울신문(서울신문)	2	6	86	48	142
26	세계일보(세계일보)		7	75	48	130
27	KBS(KBS)	1	2	70	53	126
28	한국일보(한국일보)	1	6	65	49	121
29	문화일보(문화일보)		5	75	39	119
30	머리스(머리스)	1	13	59	32	105

no	행 레이블	12월	1월	2월	3월	총합계
31	YTN(YTN)	1	5	53	29	88
32	SBS(SBS)	4	4	49	30	87
33	데일리안(데일리안)		3	47	35	85
34	노컷뉴스(노컷뉴스)		4	42	16	62
35	이코노미스트(이코노미스트)	2	3	27	25	57
36	연합뉴스TV(연합뉴스TV)	2	5	33	12	52
37	부산일보(부산일보)		3	20	28	51
38	매일신문(매일신문)		2	22	23	47
39	더팩트(더팩트)			21	21	42
40	MBN(MBN)	1	1	24	16	42
41	한겨레(한겨레)	1	3	26	11	41
42	국제신문(국제신문)		4	19	16	39
43	블로터(블로터)		5	23	8	36
44	TV조선(TV조선)		1	22	8	31
45	한경비즈니스(한경비즈니스)		3	16	12	31
46	조세일보(조세일보)	1	1	17	11	30
47	시사저널(시사저널)		2	18	10	30
48	JTBC(JTBC)			22	7	29
49	매경이코노미(매경이코노미)		1	13	13	27
50	MBC(MBC)	1	2	16	7	26
51	비즈워치(비즈워치)			10	15	25
52	중앙SUNDAY(중앙SUNDAY)			15	8	23
53	주간동아(주간동아)		1	9	11	21
54	미디어오늘(미디어오늘)			10	9	19
55	인벤(인벤)			10	8	18
56	대전일보(대전일보)			10	7	17
57	오마이뉴스(오마이뉴스)		1	7	9	17
58	스포츠조선(스포츠조선)		1	8	6	15
59	프레시안(프레시안)		1	4	9	14
60	농민신문(농민신문)		2	7	5	14

no	행 레이블	12월	1월	2월	3월	총합계
61	강원일보(강원일보)			6	7	13
62	경기일보(경기일보)			4	9	13
63	동아사이언스(동아사이언스)		1	4	8	13
64	주간조선(주간조선)		2	6	4	12
65	주간경향(주간경향)	2	4	3	3	12
66	채널A(채널A)		2	6	4	12
67	여성신문(여성신문)	1	1	6	4	12
68	스포츠경향(스포츠경향)			6	6	12
69	비즈니스위치(비즈니스위치)		1	10		11
70	코메디닷컴(코메디닷컴)	1	3	4	3	11
71	강원도민일보(강원도민일보)			11		11
72	스포츠동아(스포츠동아)			7	4	11
73	kbc광주방송(kbc광주방송)			3	7	10
74	디시이즈게임(디시이즈게임)		1	5	4	10
75	더스쿠프(더스쿠프)			7	2	9
76	스포츠서울(스포츠서울)			1	8	9
77	OSEN(OSEN)			4	4	8
78	스타뉴스(스타뉴스)			3	3	6
79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2	4	6
80	코리아중앙데일리		1	3	1	5
81	스포츠월드(스포츠월드)		1	3		4
82	게임메카(게임메카)			3	1	4
83	데일리e스포츠(데일리e스포츠)			2	2	4
84	마이데일리(마이데일리)			3	1	4
85	스포티비뉴스(스포티비뉴스)			4		4
86	MBC연예(MBC연예)			4		4
87	기자협회보(기자협회보)			3	1	4
88	MHN스포츠(MHN스포츠)				3	3
89	시사HN(시사HN)		2		1	3
90	뉴스엔(뉴스엔)			2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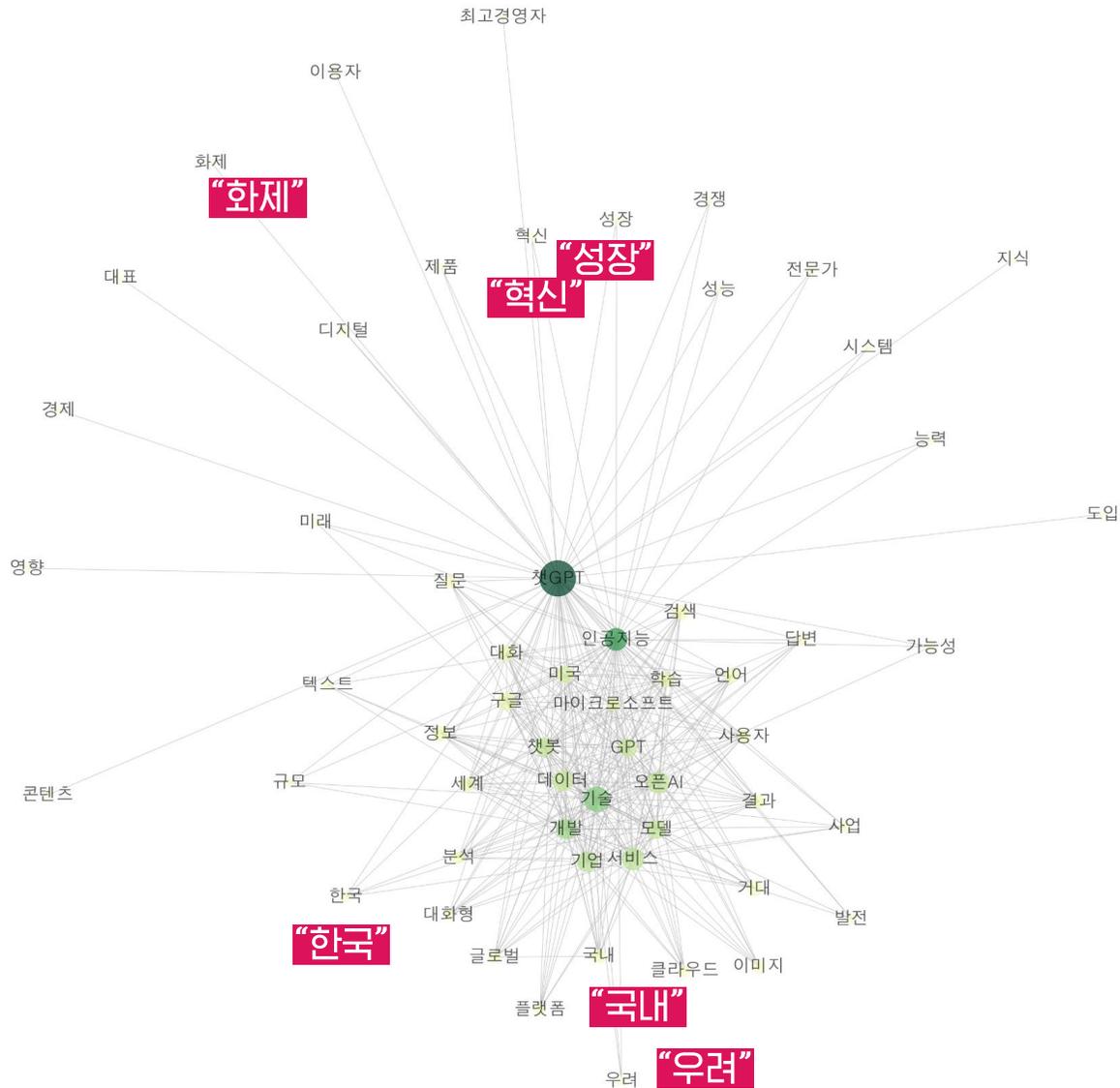
자, 그럼 **언론사**에서 다뤄진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볼까?



## 월별 SNA [Social Network Analysis] 분석 결과 보기



# ChatGPT 관련 국내 언론 보도 내용 SNA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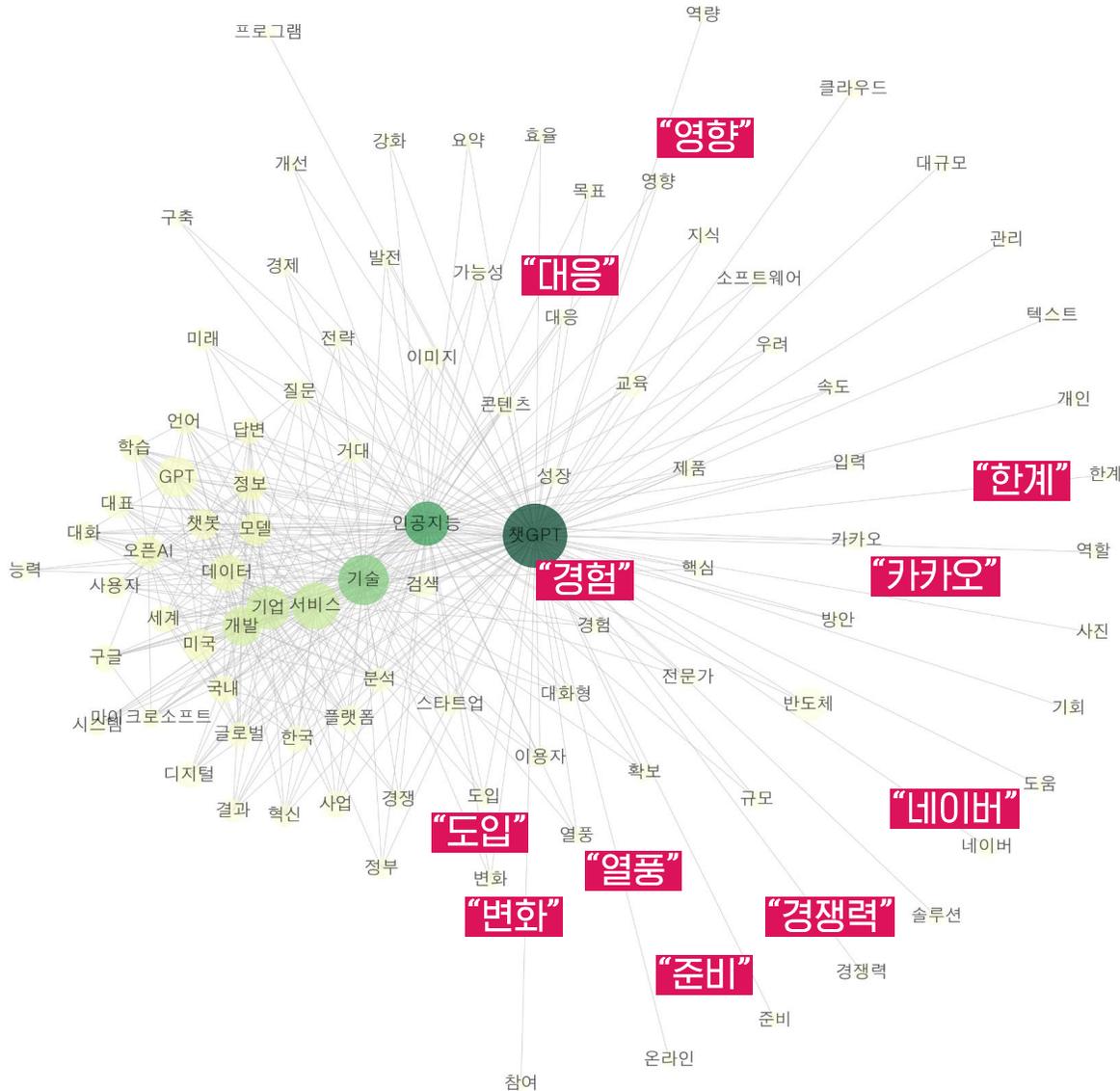


"시 챗봇, 정답을 알려줘"... 신종 컨닝법 유행에 '떠들석'  
음악시 포자랩스, 세계 권위 시학회 뉴립스에 논문 등재  
'챗GPT' 열풍에 초거대AI 서비스 개발 가속화  
챗GPT에 놀란 학계..."시 대필 금지"  
[특징주] 코난테크놀로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투자 소식에 주가 ↑  
챗GPT 정확도 비결은 '노동 착취'... 시급 2달러에 케냐 노동자가 데이터 분류  
"MS, 검색엔진 Bing 시버전 개발중...구글 아성에 도전"  
"우리 전에 얘기했던 거 알지?"...영화처럼 시와 '감성대화' 나눈다  
대통령, 이상민 행안 장관에 "‘챗 GPT’ 연구해 공무원들 잘 활용하게 해달라"

1월, 언론 보도량 706건  
**국내 활용 사례 가시화 시작,**  
**정부 관심도 고조**



# ChatGPT 관련 국내 언론 보도 내용 SNA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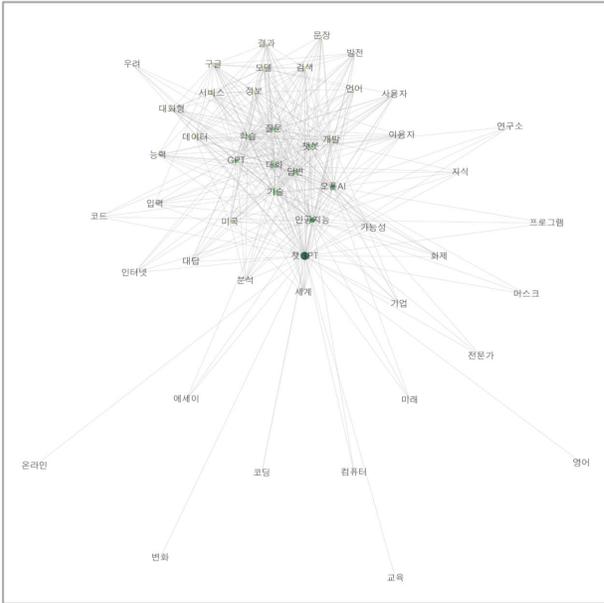


챗GPT가 쓰고 파파고가 번역한 책, 단 7일 만에 출간되다  
 MS, 윈도우11에 '빙 AI 채팅' 전진 배치  
 유튜브도 '챗GPT' 열풍 가세... "영상 편집에 AI 기능 탑재"  
 "GPT-4 활용에 필수"··정부 'AI 조련사' 교육과정 신설 검토  
 "빈부격차보다 더 무서운 챗GPT 격차" 30년 AI 연구자의 조언  
 [DBR]AI를 이기려면 기업별 고유한 인재상 확립해야  
 [단독]챗GPT, 우회 질문하자 해킹코드 솔솔 내놔... 범죄 악용 우려  
 [테크&포커스] 강원 쓰나미에도 생성AI 투자... 네카오 "지원없인 기술격차"  
 "출판계도 챗GPT 돌풍...신간 17종 출간, 판매량도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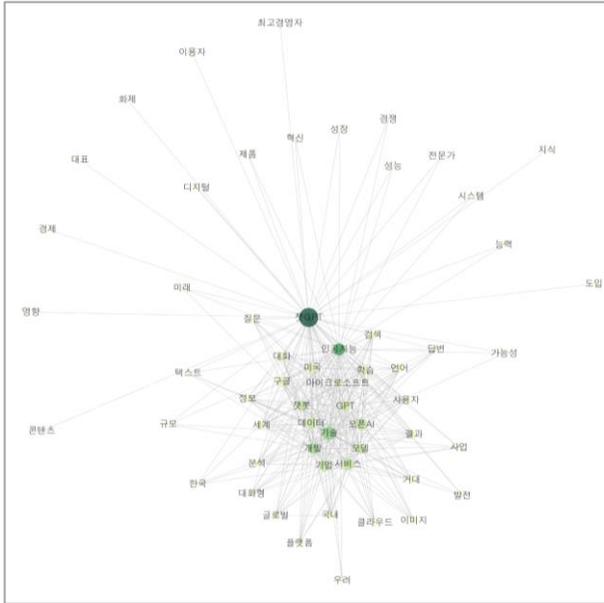
3월, 언론 보도량 3,250건  
**대국민적 인공지능 테스트 범람,**  
**정부는 교육 과정 신설**

# 2022년 12월~2023년 3월까지의 월별 SNA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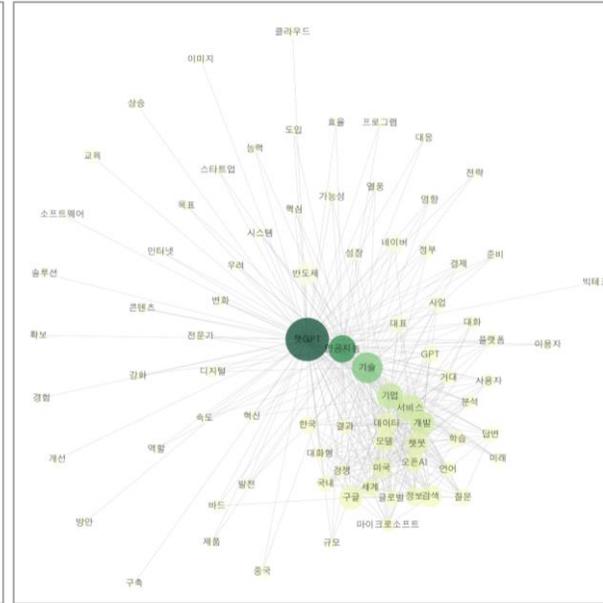
2022년 12월 언론 S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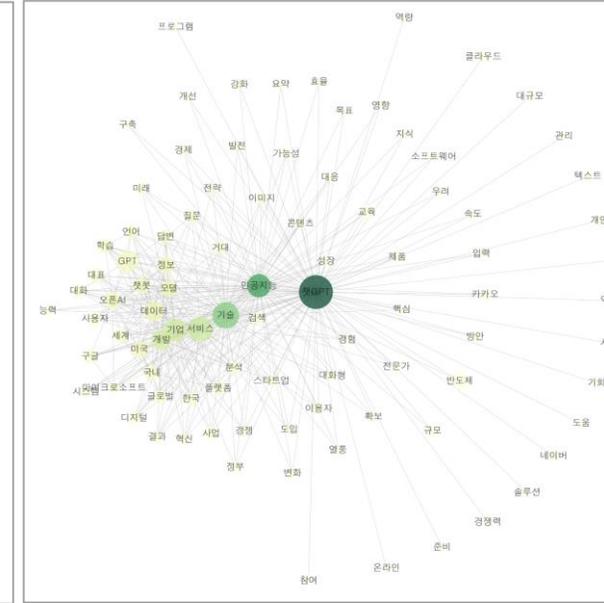
2023년 01월 언론 SNA



2023년 02월 언론 SNA



2023년 03월 언론 SNA



12월, 언론 보도량 93건

단순 기능 소개와  
해외 활용 사례 인용,

아직 막연하지만 이슈화 시작

1월, 언론 보도량 706건

국내 활용 사례 가시화 시작,  
정부 관심도 고조

2월, 언론 보도량 4,47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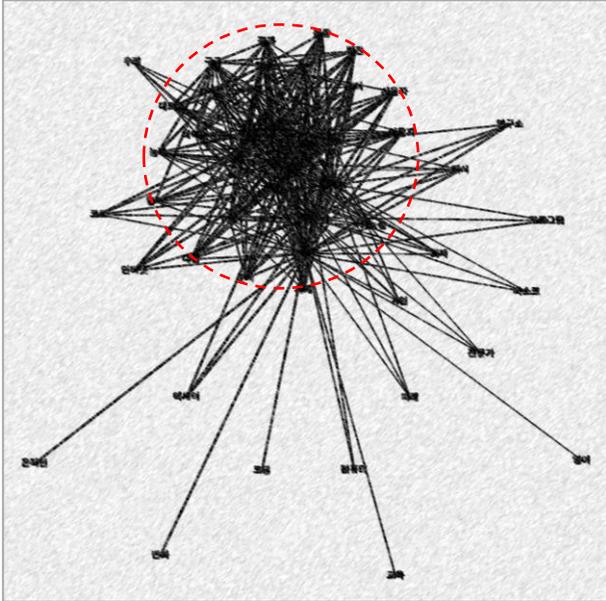
국내 기업들의 AI 시장 진입 가속화,  
그리고 구글의 맞대응 시작

3월, 언론 보도량 3,25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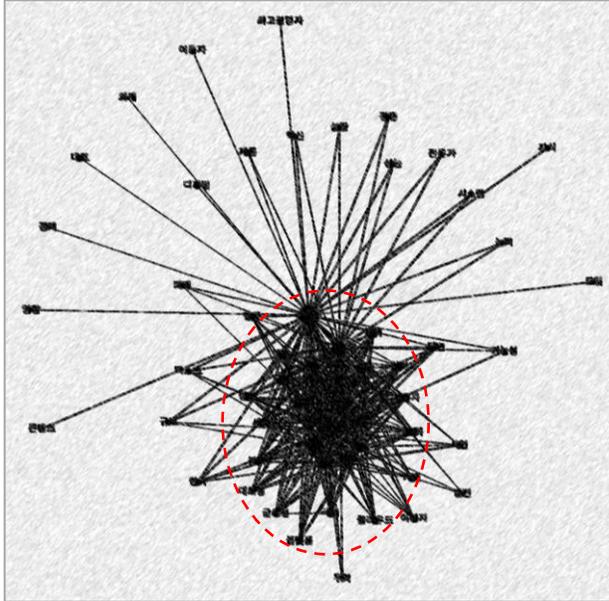
대국민적 인공지능 테스트 범람,  
정부는 교육 과정 신설

월별 내용 변화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시장 변화의 모양이 뚜렷하게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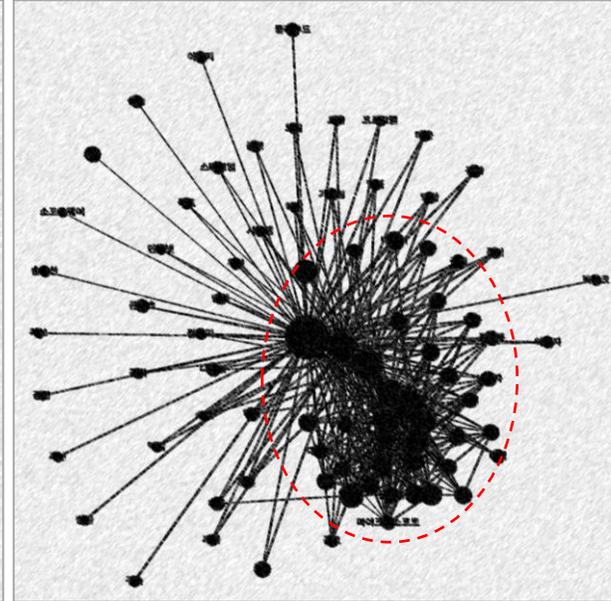
2022년 12월 언론 S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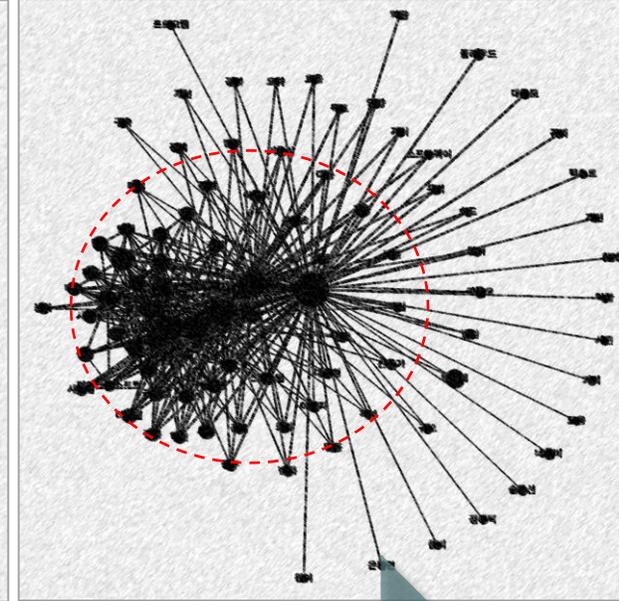
2023년 01월 언론 SNA



2023년 02월 언론 SNA



2023년 03월 언론 SNA



12월, 언론 보도량

키워드의 개수, 키워드 간 연결망 구조, 중심에 집중된 키워드 밀접성 등이 확연히 변화

**초기 단편적 이슈에 집중하던 것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시작**

연말 언론 보도량 3,250건

아직 막연하지만 이슈화 시작

단순 기능 소개  
해외 활용 사례 인용

정부 관심도 고조

국내 기업들의 자사형 인공 지능과,  
그리고 구글의 맞대응 시작

국내 인공 지능 시범 테스트 범람,  
정부는 교육 과정 신설

# Conclusion

사실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분석 결과는 별다른 게 없다.

여론의 반응도 아직까지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는 정도이고  
언론 기사 역시 아직은 정부 대응 방침이나 국내 기업 행보, 활용 사례,  
그리고 늘 그렇듯, 주식 종목에 집중하는 비중이 많았다.

그럼에도 분명 ChatGPT로 인한 파급력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그런데 왜 유독 ChatGPT의 파급력이 이리 쎈~걸까?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도 물론 있겠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즉시 사용할 수 있고, 더군다나 사용하기 쉬운 기술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ChatGPT는 인공지능의 대중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인공지능이 빼앗을 수 있는 일자리,  
그로 인한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지도 모르고

반도체 강국, 인터넷 인프라 강국, BTS까지 이르게 한 각종 K Culture의 열풍이  
과거의 산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각종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시점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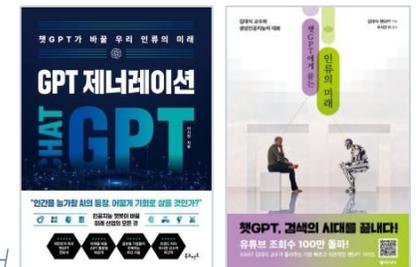
이제 막 식당에 설치된 키오스크가 익숙해지고  
서빙 로봇을 신기해 하며 쳐다보지 않게 되었는데

30년 넘게 잘 쓰고 있던 인터넷 검색을 대체 할지도 모른다는  
인공지능을 마주해야 한다니.. 이걸 좋아해야 할지.. 무서워해야 할지..

일단은.. 어 일단은.. 외면하고 있어야겠다.

“ 대중들은 최신 기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원한다. ”

- 책 <GPT 제너레이션> 중에서 -



“ChatGPT와 관련해서  
이 책 두 권이 꽤 재미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hatGPT가 만든 이미지는 아니지만,  
eMFORCE 제작실에서 “인공지능 디자인 솔루션”을 이용해 만든 **광고 이미지** 몇 개를 투척해 본다.

<제주항공> 브랜드를 예시로 활용했는데, 기획 방향은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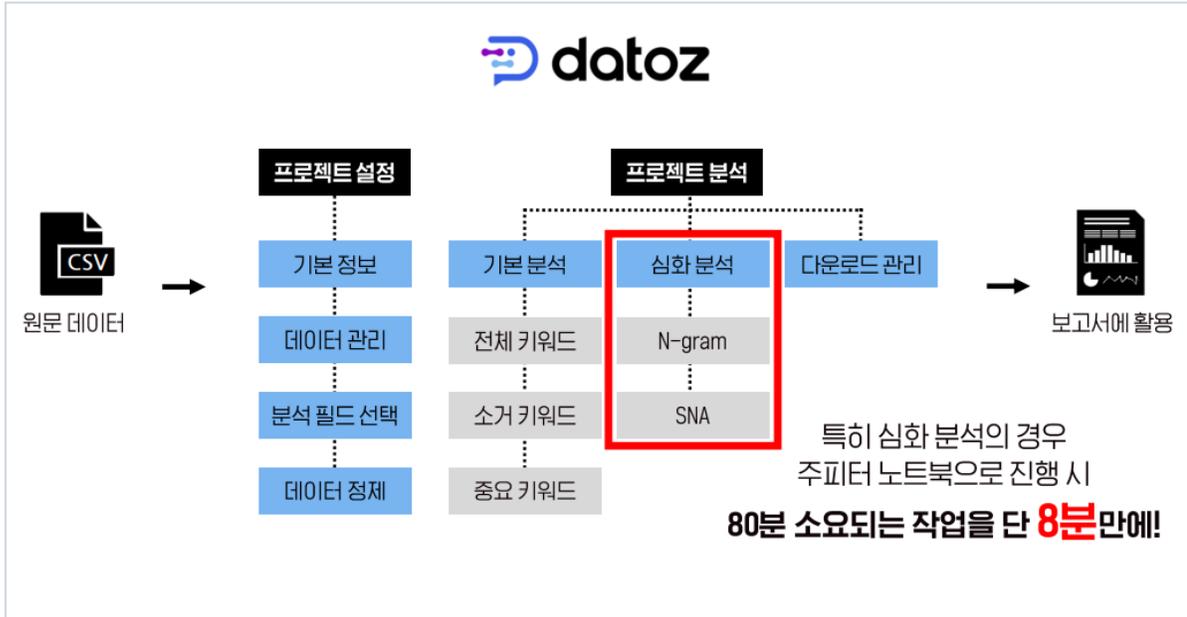
최근 해외여행이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에게 항공사는 굉장히~~ **저관여** 영역이다.  
그래서 항공사들이 집행하는 광고 이미지나 메시지들을 보면 대체로 **할인 가격, 취항 노선** 등 **천편일률적**이다.  
이럴 때일수록 (즉,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수요가 몰릴 때일수록) 한 발 떨어져서 Image Making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제주항공의 **Brand Color**를 기반으로,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한 **로망**이나 **기대 이미지**와의 접목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브랜드와 친해질 수 있는 Branding을 집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짜잔~

*\*실제로, 해외여행시 항공사에 대한 관여도는 낮지만, 코로나19 동안 여행을 그리워하는 순간은 ‘공항 가는 길’, ‘비행기 탑승 순간’이었다.*



창 밖으로 본 도쿄타워

정말, 마지막으로! eMFORCE에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솔루션이 있다.  
“코딩 따위 필요 없는 ‘무료’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데이토즈(Datoz)』”



데이토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파이썬, R 코딩을 하지 않고도 키워드를 분해해주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등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솔루션이다.

게다가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 컴퓨터 사양에 따라 속도 차이가 나지 않고 코딩을 짜서 하는 속도보다 빠른 때가 많다.

물론 아직은 **베타 버전**이라 불편할 수 있지만 분석의 맛이라도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URL 클릭~**

URL : <https://www.datoz.net>



# E n d O f D o c u m e n t

## Contact Us

Website URL <http://bigdata.emforce.co.kr>

Analyst 박경하 실장 T 02. 6177. 1871 eMAIL khbak@emforce.co.kr